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 http://dgupress.dongguk.ac.kr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02)2260-3491~2 FAX(02)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054)770-2057

제1343호 2002년 (불기 2546년) 5월 20일 월요일

금주일언

마음이 머물러 있어서 동요하지 않고, 깊은 지혜에 들어가 있어서 일심으로 듣고 받아들이며, 들은 법문 및 세간의 일을 전부 반야바라밀과 합한다.

방편론

야구부, 내년 정상향한 '도약'

타선주축 3학년 · 투수유망주 경험축적 기대

과거 고등학교를 졸업한 운동선수에게 대학팀은 실업팀으로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는 관문이었다. 그러나 프로스포츠가 활발해지면서 고졸 선수들이 곧바로 프로무대로 진출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때문에 대학팀은 선수수급이 어려워 뛰어난 선수를 영입하기 어렵고, 경기의 질이 떨어지면서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대학 운동팀의 활성화를 위해 학내 구성원의 관심과 응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에 본사 대학부는 타대학 감독 등 스포츠 관계자를 통해 본교 체육부의 전력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1. 야구부 2. 축구부 3. 농구부

한국 프로야구 20년 사상 최고의 3루수로 꼽히는 한대화 감독이 이끄는 본교 야구부.

지난 2000년 2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올해 '전국대학춘계리그전'에서 예선탈락하는 등 최근 성적은 좋지 않은 편이다. 오는 6월 1일 개막하는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를 위해 집중훈련을 하고 있는 본교 야구부에 대해 알아본다.

▲전력분석=투수진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다. 단국대 김유진 코치는 "올해 프로에 진출한 이대환(현대), 서승화(LG) 선수의 공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큰 경기에서 상대타선을 압도할만한 에이스가 없다는 평이다. 시속 140Km를 넘나드는 빠른 직구 대신, 제구력과 다양한 구질을 갖춘 투수가 주축을 이룬다.

이에 반해 타력은 지난해보다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 4경기에서 32점을 뽑을 정도로 막강한 수준이다. 클린업 트리오인 방승재 박정권 류한준(이하 체교3) 선수는 타대학 감독들이 꼽는 경계대상 1호.

수비진은 대체로 안정된 편이다. 특히 유격수 백승훈(체교4) 선수와 3루수 이상윤(법4) 선수가 지키는 내야가 탄탄하다. 그러나 강귀태(현대) 선수의 졸업 이후, 예전보다 포수 수비가 약해진 것이 단점이다.

▲전망=앞으로 야구부는 4개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현재 대학 야구관계자들이 꼽는 유력한 우승후보로는 동의대, 한양대, 건국대 등이 있다.

본교는 투수력의 열세로 우승전력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야구부 한대화 감독도 "목표는 일단 4강"이라 말했다.

야구부 관계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올해보다는 내년 성적이다. 야구부 이동수 코치는 "현재 타선의 주축인 3학년 선수들과 2, 3학년 투수 유망주들이 경험을 쌓으면 올해보다 전력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에서 당초 우승전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받았던 동아대가 정상에 오른 것처럼, 각 팀들의 전력이 평준화됐기 때문에 쉽게 우승팀을 점치기 어려운 형편이다. 때문에 본교 역시 올해 남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학교 · 총학, 논의 본격 진행

공식협의 후 등록금 · 불교병원 관련 실무협상

학교당국과 총학생회(회장=주진완 · 국교4)가 지난 15일 첫 공식협의를 시작으로 입장차이를 좁혀 나가고 있다.

김용기(수학교육) 학생처장을 비롯한 학교대표와 양희창(반도체4) 부총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대표는 학생처장실에서 불교병원과 등록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불교병원에 대해 학생회는 "병원이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학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학교회계와 병원회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희창 부총학생회장은 "회계분리는 교비가 병원 건립 · 운영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교측은 "불교병원이 개원하면 본교 의대 · 한의대 학생들의 연구 · 실습 공간 등으로 사용되는 만큼 등록금의 일부가 사용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등록금과 관련해 학생회는 올해 인상된 등록금 5%의 사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학교측은 이에 대해 "인상된 등록금은 교육환경개선과 단위요구안을 집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현(경영3) 야간강좌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책정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등록금 관련 예산 집행은 학내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총학생회의 기본입장을 재차 주장했다.

공식협의 이후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분을 2002년 예산에서 따로 분리해 교육환경개선비로만 사용할 것을 학교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비공식적으로 중앙요구안과 관련해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처의 한 관계자는 "실무협의에서 요구안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고, 양측의 합의 내용 등은 공식적인 논의자리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학생처와 단과대 대표자들은 오늘부터 릴레이 협상을 진행해 각 단과대학 요구안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5일 교수회(회장=박종훈 · 윤리문화학)는 불교종합병원과 관련한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학교측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서 △병원 · 교비회계를 분리해 공개할 것 △병원 전입금을 부속병원별로 공개할 것 등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송일호(경제학) 총무는 "만약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교수회 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비오는 날의 축제 … 대동제 첫날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는 축제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됐다. 때문에 대부분의 야외행사는 취소됐고 축제는 차분한 분위기속에 지난 17일 막을 내렸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독일자매대학 어학연수
다음달 15일부터 6주간

연구처(처장=최순열 · 국어교육) 국제교류실은 지난해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에 신설된 '동국대 연수과정'에 단기 어학연수생 15명을 파견한다.

다음달 15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기존의 교환학생제도와 달리 독일어 연수만을 목적으로 하며, 6주간 진행된다. 파견되는 연수생들은 독일어 기초학력 증명시험(ZDaF)을 중급이상 통과한 학생들이다.

불교병원 직원채용
5천200여명 접수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불교병원 직원채용 원서접수에 5천200여명이 지원했다.

동국의료원 인사과의 한 관계자는 "본교 부속병원 직원과 졸업생의 지원이 많았으며, 일산지역 병원에 근무하는 경험직 지원자들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은 지난 17일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으며, 합격자들은 △경력직=면접 △신규직=면접 ·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본사 주간 유흔우 교수
지난 13일자 발령

본사 주간에 유흔우(철학) 교수가 지난 13일 임명됐다.

신임 유흔우 교수는 본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 ·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97년 본교에 부임했다.

올해부터 1학기 수시모집 실시

특기 · 적성자 위주 전면 인터넷 접수

200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1학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다음달 8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1학기 수시모집은 특기와 적성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이번 1학기 수시모집에서 서울캠퍼스는 △담임교사 추천=135명 △연기재능우수자 장기취업자 불교계추천(만 25세 이상)=128명을 선발하고, 경주캠퍼스는 만학도 및 주부특별전형 57명을 선발한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담임교사 추천 전형은 고교에서 이수한 교과계열과 동일한 계열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

특히 이번 수시모집은 전면 인터넷으로만 접수받는다.

방법은 http://www.apply114.com 또는 http://www.uway.com에 접속 후 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학생선발실의 한 관계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접수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문 · 불자 발전기금 기부

조선내화 대표 이화일 동문 1억원 전달

조선내화 대표 이화일(상65졸) 동문이 불교병원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지난달 29일 송석구 총장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이 동문은 지금까지 총 3억5천3백만원을 발전기금으로 내놓았다.

또한 경남 통영의 신광사 선도스님은 경주캠퍼스 '땅 한평 사기 운동'에 2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5천만원을 기부했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교육부지매입을 목적으로 '땅 한평 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츠기가와 쿠라오 교수
도서기증 감사패 수여

법학관련도서 5천여권을 본교에 기증한 츠기가와 쿠라오(일본 경도산업대 법학부) 교수가 내일(21일) 감사패를 받는다.

감사패는 송석구 총장이 직접 전달하며, 수여식은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보리수

空, Animation, 해체

근세 한국불교의 새벽을 연 효봉(曉峰)스님은 용맹정진하시던 토굴의 벽을 부수고 나와 다음과 같이 당신의 깨침을 노래하셨다.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 속 거미줄에 고기가 차를 달이네…' 확고부동한 듯이 보였던 세상 만사의 질서는 선승(禪僧) 효봉이 휘두른 반야의 칼질에 의해 재조합되고 만다. 효봉스님은 공(空)에 대한 투철한 조망에 토대를 두고 파격의 오도송(悟道頌)을 읊조렸던 것이다. 공은 지적인 해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공에 대한 조망이 확고해질 때 우리의 종교적 번민 역시 해체된다.

우리는 Animation과 같은 영상물을 통해 선승들의 오도송과 같은 파격적 장면들과 만난다. '바위에 눌려 종이장처럼 납작해진 늑대가 다시 살아나 토끼를 쫓는다. 핸드폰에서 무지개 빛 물감이 분사된다. 모든 사람이 공중으로 튀어 오르며 덩실덩실 춤을 춘다. 글씨가 구름으로 변했다가, 꽃바람이 되어 몰아친다. … 돌사자(石獅子)가 웃는다. 석녀(石女)가 아이를 낳는다. 서강(西江)의 물을 한 입에 마신다.' 이 모든 것들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러나 TV, 영화, Cyber Space 등을 통해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이와 유사한 파격(破格)들을 감상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해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도처에 널린 영상매체를 통해 고정관념의 해체를 훈련한다. 그러나 선승(禪僧)이 체험한 깨달음의 해체와 영상을 통해 제공되는 예술적 해체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선승의 경우 수행을 통해 관념만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집착 역시 해체한다. 이기심과 자의식이 해체될 때 선승의 가슴에서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심이 솟게 된다. 그러나 영상매체가 제공하는 해체는 지적이고 관념적인 영역만 건드릴 뿐,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분노는 잠재우지 못한다. 무중력의 공간, 영상의 시대에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 성 철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지면안내

6~7면 대학내 사회봉사 활동
사회봉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생들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대학사회봉사 변화의 흐름과 앞으로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4면 서울 중심주의
5면 본교 부설연구기관 기획
11면 건축미학으로 본 캠퍼스

수습기자 모집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당신의 꿈을 싹틔우세요!
학생기자의 꿈 … 동대신문사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 (본사에서 배부 중)
②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1장 분량)
· 원서마감 및 선발 : 5월 30일(목) 오후 6시
· 장 소 : 본사 회의실 (학생회관 지하 1층)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동대신문사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수상자 여러분의 연락을 바랍니다.

동대신문사 · 문예창작학과 주최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가 고등학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수상자 여러분들의 작품을 묶어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분들 중 본인의 글이 수록되는 것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다음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대신문사 2260-3491, 문예창작학과 2260-3144

1회 하 일 홍청자 오순희 2회 송영섭 윤상규 최명희 이재순 3회 문정희 박정만 노영숙 부덕희 4회 이근호 홍현희 서수진 5회 심은상 서인숙 조한철 6회 손종호 박남준 박영욱 7회 이진환 정석희 황경열 8회 김연신 이균영 최시한 박남준 조미하 9회 노재하 이병천 김선자 10회 손종철 박기달 김택근 이정실 11회 최병래 최춘희 박성민 김성원 12회 손동연 한 장원 채희문 김명숙 13회 김산춘 김인호 이숙경 14회 김상욱 이재홍 정의정 15회 조재훈 윤성근 한현수 육영수 16회 문순건 정찬흡 신은희 김미선 17회 최중홍 안도현 이순옥 오승희 18회 서영길 박경화 김정연 박철규 19회 홍경윤 정경수 문명은 성낙향 20회 오선홍 권애영 최영순 나광수 21회 김성식 장석남 함만식 안재숙 이선애 22회 박형준 김은경 인소영 23회 백우영 서한기 김현정 최은옥 24회 이창배 강희찬 김혜리 신순재 25회 정희윤 신동렬 박성주 송은하 26회 이상덕 이 영 김유리 임재희 27회 현석훈 김병수 박희정 오현숙 28회 김길련 오윤정 채송화 성연경 29회 전용문 이지향 안미영 30회 강종헌 홍명옥 김영임 31회 정석민 김지숙 조수경 32회 김인영 정유경 김태영 33회 양윤의 홍연주 정리태 34회 남혜정 곽상희 이화진 35회 이영환 곽승경 황인섭 36회 김민음 이신애 임여빈 37회 최설희 박소영 강예진 38회 김루미 석재임 김정민 39회 박소영 민지혜 양은정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 문예창작학과

취업대비 인·적성 검사 해설 오늘(20일) 결과 배부

지난주 진행됐던 '취업대비 인·적성검사' 결과 해설강좌가 오늘 오후 5시 30분 동국관 L동 501호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검사 실시기관인 매일경제신문사 상담원이 검사 결과를 배부한 후 각 대기업 인·적성검사의 경향과 응시 요령을 해설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한편, 이날 적성검사 결과를 받지 못한 학생은 내일(21일)부터 학생상담실(소장=고진호·교육학)에서 추가로 배부 받을 수 있다.

MINT 정기 세미나 개최 오는 24일 오후 4시 P405

밀리미터파 신기술 연구센터(소장=이진구·전자공학) 정기 세미나가 오는 24일 오후 4시 정보문화관 P동 405호에서 열린다.

'초고주파 무선통신기술과 시장동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밀리트론 조낙양 대표이사가 연사로 나서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 … 공학교육' ABEEK인증대비 등 논의

공학교육연구센터(소장=조성구·산업시스템공학)가 주최하고 공과대·정보산업대가 공동 주관한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공학교육 방안 심포지움'이 지난 16일 열렸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공학교육 인증 정착방안 △시장경제와 공학교육 등을 주제로 주제발표, 종합토의, 초청강연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초청강사인 안승준 삼성전자 인재개발 연구소장은 "기업의 요구수준과 대학교육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과대학생회 다양한 행사 교과공청회·취업설명회

이과대 학생회(회장=김규배·물리4)가 내일(21일) 오후 6시 명진관 104호 강의실에서 교과과정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시험주간의 필요성 △교양수업에 대한 불만 △실험기자재 부족 등 이과대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해 논의하며 이과대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과대 학생회는 '대학생들의 취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는 22일 오후 5시 90주년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졸업생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총대의장 '장학금문제'로 사퇴

집행부 차명신청 … 징계수위 이번 주 확정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집행부 장학금 차명신청과 관련해 윤재욱(역교4) 의장이 지난 12일 공식 사퇴했다.

장학금 차명신청은 지난 4월초 본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공대 비상대책위원회의 "학생회 간부의 장학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문제제기로 드러났다. 이후 총대 의장은 답변을 통해 공석인 총대 집행부 장학금을 차명신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한달뒤 대자보를 작성해 의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또한 장학금 신청에 이름을 빌려준 학생을 소개한 경영대 대의원장도 사퇴했다.

윤재욱 의장은 지난 7일 열린 교무위원회에 참석해 소견을 밝혔으며, 교무위원들은 이날 총대 의장을 비롯한 4명의 학생을 상벌위원회(위원장=김용기 학생처장·수학교육)에 회부했다. 상벌위원회는 총대 의장, 경영대 대의원장, 이름을 빌려준 2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합의했으며, 최종결과는 이번 주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총대 의장의 소속 학과인 역사교육과 교수들은 학교측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강택구(역사교육) 교수는 "장학금 차명신청은 분명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졸업을 앞둔 학생의 신분까지 위협하는 징계는 내려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평점평균 등 장학금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부 학생회 간부 학생들은 공공연히 차명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학교측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 총대의원회 의장, 단과대 학생회장과 달리 집행부들의 실명을 파악하지 못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올 초 '재터 이면계약' 공개 이후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는 "학생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집행부의 장학금 신청을 차명으로 하지 않겠다"고 학교측과 합의했다. 단, 학생회 간부들이 받지 못하는 장학금은 일반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방안도 함께 결정했다.

한편 총대의원회는 보궐선거 전까지 사범대 대의원장 정석중(수교4) 군이 의장권한대행을 맡기로 했으며, 다음달 초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본교 홈페이지 스팸메일 문제

'공개' 원칙 때문 걸러내기 한계

사용자요구 높으면 서버차원 차단 가능

오랜만에 본교 홈페이지 이메일 '받은 편지함'을 열어보니, 읽은 않은 편지가 수 백 통이다. 이들 대부분은 대량 상업성 광고메일이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스팸메일의 위협에 본교 홈페이지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러한 스팸메일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대량광고메일 제목에 반드시 '(광고)'라고 표기하도록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자우편 프로그램 아웃룩(익스프레스)의 스팸메일 차단 기능을 교묘히 피해, 발송자들이 '(광-고)' '(광 고)' 등으로 표기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앞서 포탈 사이트의 경우 올 초부터 스팸메일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한메일의 경우, 스팸메일의 차단 수위를 사용자가 결정하는 등 걸러내기 기능을 강화했다.

그러나 본교 홈페이지 메일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도메인이나 아이디를 수신거부해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수준이다. 사용편의와 기능만으로 보자면 다른 상업적인 사이트에 비해 뒤쳐지는 편이지만, 대학 홈페이지 이메일은 누구나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차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보관리실의 한 관계자는 "사용자들의 요구여론이 높다면 본교도 최대 70%까지 스팸메일을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스팸메일 신고 접수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본교 홈페이지 이메일에서 스팸메일을 차단하려면 개인적으로 △도메인·아이디 수신거부 설정 △아웃룩(익스프렉스) '메시지 규칙'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학교서버차원에서 본교 홈페이지 이메일서비스의 스팸메일 차단기능이 강화되려면, 사용자들의 스팸신고가 늘어나 "서버차원의 걸러내기 기능이 강화돼야한다"는 여론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2학기 성적우수장학 신청 31일까지 지도교수에게

2002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 장학 신청이 오늘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우수 장학은 2학기 등록금 30%가 감면되며, 신청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학업지도교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교외장학생도 우수장학을 신청한 학생 중 선발한다.

우수장학생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60% △사회봉사 10% △가정형편 20% △학업지도교수 평가 10%이다.

하계 해외봉사단원 모집 7월 중순 중국 심양으로

참사람봉사단(단장=김용기·수학교육)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2002학년도 하계 해외봉사 단원을 모집한다.

이번 해외봉사는 중국 요녕성 심양에서 오는 7월 18일부터 14박 15일간 실시된다.

참가 학생은 해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글 △컴퓨터 △한국사 △태권도 △사물놀이 △레크리에이션 △고전무용 △미술 △스포츠댄스를 가르치게 된다. 봉사활동 학생부담 경비는 1인당 50만원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학생복지실 참사람봉사단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인원은 20명이다.

지난 1342호 영어패스제 기사 중 '선착순 400명'을 '제한없음'으로 정정합니다.

"고맙스무니다"…

제1기 한국어학당 수료식이 지난 17일 열렸다. 이날 수료증을 받은 15명의 외국인 학생들은 서툰 우리말로 한국어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건강한 여성들의 즐거운 축제

총여, 내일(21일)부터 여성주간

총여학생회(회장=허고은·중문3, 이하 총여)가 내일(21일)부터 3일간 여성주간을 설정하고 '건강한 여자가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또한 총여는 그동안 매달 새로운 주제를 정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던 백지 대자보를 정리해 중앙도서관 앞에 전시하고, 잘못된 건강상식을 알리는 '불상앞 바닥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21일	22일	23일	
여성의 몸에 좋은 한방찻집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여성의 건강	한의학으로 본 여성의 건강	폐막제 수기공모 시상식
중도앞 11시 30분~6시	문화관 세미나실 3 오후 4시	문화관 세미나실 3 오후 1시	학관앞 오후 6시
중도 앞 거리전 및 불상 앞 바닥 전시			

2차 전공결정 신청 오는 27일부터

인터넷으로 4지망까지 지원가능

2002학년도 2차 전공결정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5일간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된다.

신청 가능한 학과는 소속 대학에 개설된 전공으로 4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다. 선발 인원은 전공별 기준정원의 150%에서 1차 선발을 제외한 인원이며, 지원자가 배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성적순으로 배정한다. 또한 1지망자를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2지망으로 옮겨갈 때 해당 전공을 1지망으로 지원한 자가 평점평균이 낮더라도 우선 배정된다.

한편 전공 미결정 복학생은 재학생과 신청 기간이 다르며, 소속 대학 교학과에서 신청원을 받아 학업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교학과에 접수해야 한다. 전공배정 결과는 오는 8월 9일 홈페이지 게시 또는 대학별로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회전무대

주차대동제

○…대동제 첫날 정각원 앞에는 '자동차 피해다니기' 상설마당이 있었다는데.

통일광장 주변의 차량통제로 대부분의 차량이 혜화별관 앞 주차공간으로 몰려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꼈을 정도라고.

주최측은 대동제를 '차없는 날'로 정했지만 사전홍보가 부족해 출입차량은 평소와 크게 다를바 없었으니.

이에 자동차를 피해가던 한 학생 왈, "나를 미치게 하는 이유, 차 사이로 가기 힘든 내 몸."

간접 금언

○…한의대생들이 본교 홈페이지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데.

한의대 본과 3, 4학년생들이 생활하는 곳은 서울캠퍼스이지만 경주캠퍼스 소속이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할 수 없다고.

때문에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건의사항'이나 '나의 주장'란에 글을 올릴 수 없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생활의 발견, 그러나 금지된 발언(?!)"

Before service

○…본교 홈페이지에서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고객상담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데.

알아보니 홈페이지 소비자상담실 코너에 있는 토론장 게시판을 광고성 글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는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정보를 공유하는 공공게시판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찾아가는 고객 서비스, 짜증내지는 마세요(?!)"

안전벨

○…요즘 학생회관 2층 여자화장실 마지막 칸의 이용을 꺼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데.

이유인즉 비상벨이 사라진지 2주가 지났지만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외부업체의 사정으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야간 시간대 여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건물인 만큼 설치를 서둘러야 하지 않을런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비상벨, 화장실의 안전벨트!"

2학기 휴학, 복학, 재입학 시행

1. 일반 휴학
   - 가. 접수일자 : 6. 17(월)~19(수), 8. 26(월)~28(수)
   - 나. 휴학 대상자 :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 다. 신청서류 :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 휴학연장원(휴학연장시)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라.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6학기를초과할 수 없으며(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1년 추가 연장가능),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됨
2. 복학
   - 가. 접수일자 : 6. 10(월)~12(수), 8. 19(월)~21(수)
   - 나. 복학 대상자 : 일반휴학자로서 휴학기간 만료자 및 한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할 경우 교과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 병사휴학한 자로서 전역자 및 2002년 9월말이전 전역예정자.
   - 다. 2002학년도 2학기 복학대상자중 2학년 복학예정자는 전공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소속대학 교학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라. 구비서류
     1)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군복학자 : 복학원서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전역증사본 또는 주민 등록초본(전역일자 기재된 것) 1부
     ※ 전역예정자는 제대 후 반드시 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재입학
   - 가. 접수일자 : 6. 10(월)~12(수), 8. 19(월)~21(수)
   - 나. 재입학 대상자 : 퇴학 및 학칙 제53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로서 2002년 1학기 재입학 희망자. 단, 학칙 제53조 12호의 학사징계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 가능
   - 다. 재입학 허가자 등록기간 : 6. 17(월)~19(수), 8. 26(월)~28(수)
     ※ 소정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이 취소되며, 차순위자가 재입학 가능하게 됨을 유의 바랍니다.
   - 라. 구비서류 : 1) 재입학원서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재적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교 무 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1. 대상자 : 200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계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2. 자 격
   (1)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2) 사범계 : 교직과목 22학점, 전공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
   (3) 비사범계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 교직과목 2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로, 교직과목 및 전체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이상인 자
3. 접수기간 : 2002. 6. 3(월) ~ 6. 7(금)
4.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5. 교부 및 접수처
   - 가. 사범대학생 : 소속 학과 사무실
   - 나. 비사범계 학생 : 사범대학 교학과
   ※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사범대학 게시판에서 출력가능함.
6.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대상자는 유의하기 바랍니다.

사 범 대

2002학년도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신청서 접수

1. 신청자격 : 2002학년도 1학기 현재 2학년 재학생
2. 자격종류 : 평생교육사 2급
3. 접수기간 : 2002. 5. 27(월) ~ 5. 31(금)
4. 접 수 처 : 사범대학 교학과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여론광장 → 단과대학게시판 → 사범대학 게시판에 '평생교육사과정 이수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학년도 하계 평생교육실습 신청서 접수

1. 신청대상 : 평생교육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한 3,4학년 재학생 중 금학기 '평생교육실습'과목을 수강신청한 자
2. 접수기간 : 2002. 5. 27(월) ~ 5. 31(금)
3. 접 수 처 : 사범대학 교학과
   (신청서 사범대 교학과 비치)
4. 실습기간 : 하계방학중 3주간

사 범 대

제17회 춘계명찰순례안내

1. 순례일자 : 2002. 5. 24(금) ~ 5. 25(토) 〈1박2일〉
2. 순례장소 : 전라남도 구례군 화엄사
3. 참가대상 : 전 동국인(45명) - 선착순으로 접수함.
4. 참 가 비 : 오천원 (₩5,000)
5. 접수기간 : 2002. 5. 13(월) ~ 5. 23(목)
6. 접 수 처 : 본관 3층 학생복지실 (☎ 2260-3048)
7. 출발일시 및 장소 : 2002. 5. 24(금) 오후 3시 30분, 정각원 앞

학 생 처

세계 정상들이 보는 한국 특강

▶ 일 시 : 2002. 5. 21(화) 13:30~
▶ 장 소 : 동국관 (M409)
▶ 주 제 : 세계 정상들이 보는 한국
▶ 강 사 : 임덕규 박사
▶ 강사 약력 : 11대 국회의원, IPU대표, 세계국제법협회 회장 역임. 현재 한인도친선협회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명예회장, 영문월간 DIPLOMACY지 회장, 본교 법과대 겸임교수

법 과 대

사설 경주캠 발전추진위원회에 바란다

최근 몇 해전부터 대학들은 '교육환경 개선'에 재원 확보가 필수적임을 공감하고 발전 후원회나 추진위원회를 설립, 발전 기금 조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교육 여건을 극복하고자 발전 기금 모금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본교 경주캠퍼스 또한 지난 9일부터 '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김영종·행정학, 이하 발추위)를 구성해 발전 기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발추위는 올해 말까지 총10억 모금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에서 학교 앞 교육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1인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이 교육부지는 유해 환경을 조성하는 건물 설립 유무를 놓고 학교측과 경주시와 협의가 지속되어 온 땅으로 학교측은 반드시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 실시된 '본관건립기금조성운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운동 역시 지금 못지 않게 학교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분위기 아래 진행되었다. 하지만 모금운동만을 전담하는 행정 직원 배치 부재, 홍보미비 등의 이유 때문에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번 모금 운동 또한 부총장, 4처장, 기관장 등 보직 교수와 타부서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발추위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10억이라는 큰 목표액을 달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기금 확보 전담 위원이 보강되지 않으면, 지난날의 잘못을 반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모금 운동에 소극적이었던 지역민과 학생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발추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 시설 대여와 기증 미술 작품 전시회를 통한 모금 운동과 지역민이 참가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더불어 학교는 학교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금 운동인 만큼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고 전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발전 기금 모금 운동이 당초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본교 경주캠은 지방 캠퍼스라는 한계를 딛고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학교는 과거 모금 운동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개선한 뒤 현 모금 운동이 진정한 동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단계 판매의 실태와 문제점

합법의 탈을 쓴 불법판매 성행

"이 물건을 직접 판매한다면 한 달에 1천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한 다단계 판매업체 사장이 60여만 명의 사람들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뒤 회원등급을 올려준다는 이유로 5천765억 원이라는 부당 이익을 챙겨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95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합법적 사업을 벌여왔던 다단계 판매가 또 다시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 피라미드식 다단계 판매가 다단계 네트워크 또는 다단계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겉으로는 합법이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다단계 판매업체들은 여전히 관련 법률(제22조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 유지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어기고 회원들에게 물건 사기를 권유하고 있다.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미끼로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역삼동의 한 다단계 업체에서 연수를 받은 김모(22) 군은 "강제는 아니었지만 회원이 되기 위해선 암묵적으로 일정정도의 물품을 사야 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한다.

또한 대부분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임을 속여 결국엔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많은 하위 회원을 모집하고 물품을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회원의 각 등급마다 수당이 일정액 이하로 규정돼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대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등으로 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소비량에 비해 용돈이 부족해 다단계 판매에 쉽게 빠져들 소지가 충분하다. 지난 4월에는 다단계 업체의 회원이 된 후 빚을 지게된 서울의 한 대학생이 투신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6일 열린 '개악된 다단계법령 규탄집회'에서 서울 YMCA 회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불법 피라미드식 다단계 판매가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데도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1일 입법예고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그동안의 불법 다단계 판매를 양성화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서울 YMCA 등 사회 단체는 지난 16일 종로2가 YMCA 회관 앞에서 '개악된 다단계법령 규탄집회'를 여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YMCA 김희경 간사는 "개정안의 실행은 그동안 암암리에 행해지던 강매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지도록 도와주는 꼴"이라며 "이렇게 되면 다단계 판매에 의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YMCA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다단계 판매 업체에 가본 적이 있거나 직접 다단계 판매를 해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전체의 30%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렇듯 많은 학생들이 다단계 업체에 노출돼 있는 지금, 학생들의 이성적인 대처뿐 아니라 관련법의 강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다단계 판매 …

△다단계 판매란

소비자가 회사의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단계 판매방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피라미드라 불리던 불법 다단계 판매가 사회문제로 떠올라 1995년 7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위반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했다.

△불법 다단계 판매 선별법

1. 다단계 판매의 허가증이 없거나 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고 인증기관이 없다.
2.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이 불명확하고 지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3.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한다.
4. 다단계 판매를 통해 구입한 물건이 반품 또는 환불 되지 않는다.
5. 후원수당이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6. 판매원의 가입조건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하거나 회원등급을 올려준다는 이유로 돈을 받는다.
7. 가입만 해도 수당을 지급한다.
8. 사기, 협박 등 타인을 속여서 회원으로 가입시키려 한다.
9. 판매원이 일정 정도의 물건을 미리 구입하여 판매해야 한다.

동국만평

임희정 texaswind@hanmail.net

논단

심 익 섭
사과대 행정학과 교수

'진짜' 지자체장 필요한 때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는 21세기 화두요,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된 경향이다. "지방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듯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때 민주주의는 물론 국가경쟁력도 강해진다는 것이다. 이때 지방자치는 분권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동시에 시민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국가운영과 관련해 20세기식 정부(Government) 중심의 사고방식은 21세기를 맞아 시민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방향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차원의 로컬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는 지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한 한국의 경우 관주도적 또는 행정주도적 정치와 행정으로부터 시민중심적이거나 주민주도적 또는 상호협력적 관계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95년 민선단체장의 출범으로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메커니즘을 극복할 수 있는 단체자치의 가능성과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방향제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처럼 긍정적 변화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많았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비판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비판의 핵심이 제도 자체보다는 지방정치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와 단체장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선택한 지역주민 또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복잡성이 있다.

그동안 능력있고 양식있는 사람보다 자질시비가 뻔한 사람들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경험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4년간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5명을 포함한 40명 이상의 단체장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데, 이 숫자는 민선 1기 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장들의 비리연루 내용 중 돈과 관련된 혐의가 절반이나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가시적인 비리혐의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주민을 현혹시킬 수 있는 잘못된 정책들이다.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거나,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관공비와 같은 불투명한 예산낭비, 선심성 행사에 따른 행정력의 소진, 지역이기주의 또는 소(小)지역주의의 심화현상, 미래지향적 투자보다 이벤트성 행사에의 투자에 따른 비효율, 주민의사와는 거리가 먼 일방적인 정책결정 등 고질적인 역기능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반자치적 사례들은 지방의회 부활 11년, 민선단체장으로 따져도 7년이 되고 있는 지금도 과거 중앙집권적·권위주의적 행정행태가 잔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로컬거버넌스 시대를 맞아 주민들은 더이상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의 총체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풀뿌리제도임을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직접참여를 소화할 수 있고, 주민입장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내며, 고질적인 지역이기주의를 조정해낼 수 있는 능력 있고 투명성을 갖춘 단체장이 필요하다. 전문가적 행정관리능력을 가진 '좋은 지방정부'와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지역주민에 의한 신뢰행정속에 지방자치의 미래가 있다.

21세기 첫 선거인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필히 시민의 힘으로 악화를 제거하고 양화를 찾아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지방자치는 지향방향이나 기본틀은 어느정도 갖추어졌으나 '내용물'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내용물을 채울 사람을 뽑는 작업이 지방선거라고 할 때, 6.13 지방선거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권력강화가 아니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이다. 갈수록 시민의 지적수준이 높아지고 주민욕구 또한 계속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그에 맞는 능력을 지닌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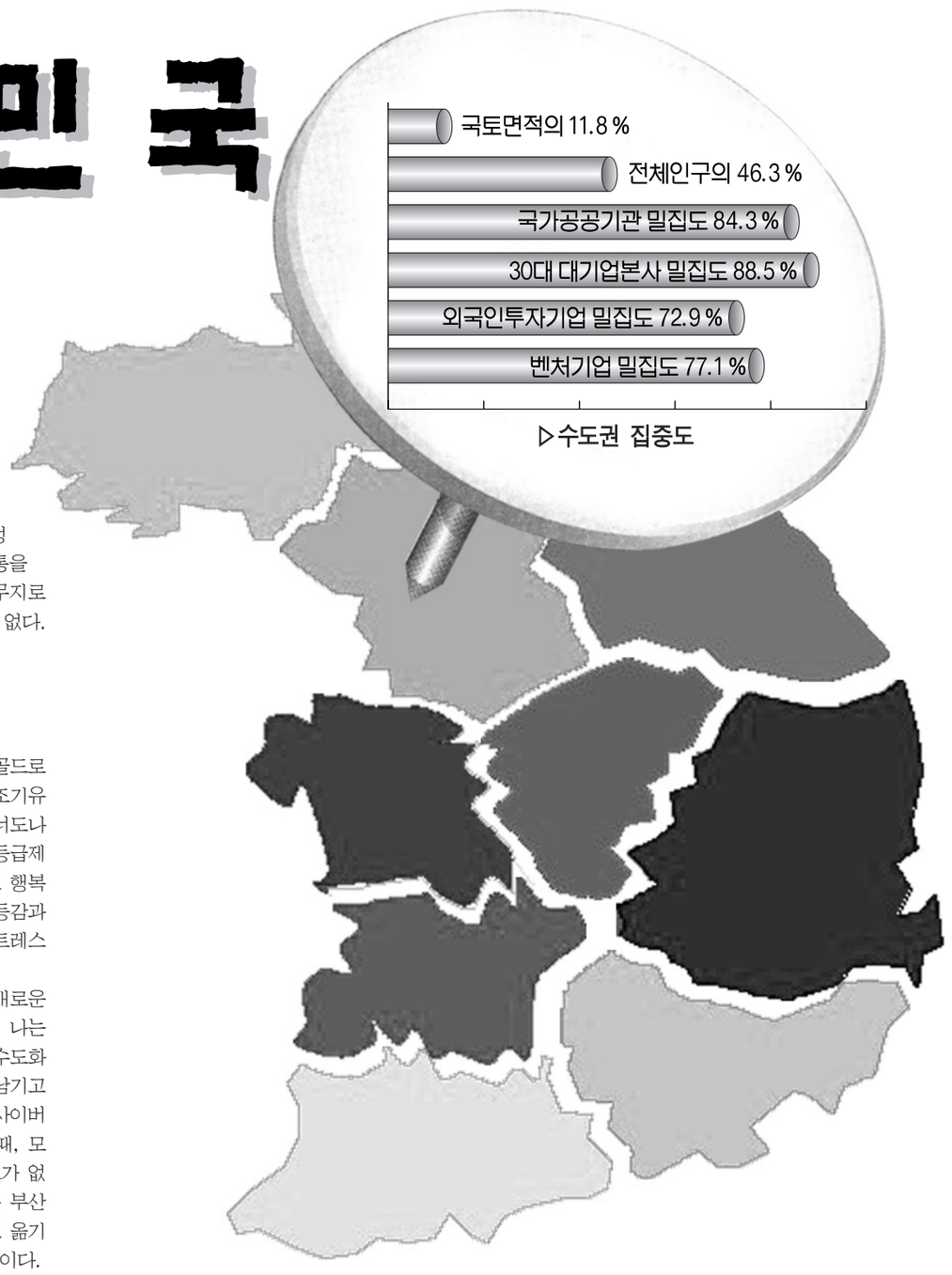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 행 인 송석구
편집인겸주간 유흔우
부 주 간 장영길
편 집 국 장 류변성
편 집 장 손상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서울의 서울을 위한 서울에 의한 대한민국



지방의회 부활 11년, 민선단체장 출범 7년을 맞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서울중심주의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지방 선거를 보름 여 남긴 지금, 서울중심주의가 낳은 수도권 편중 현상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타 지역 출신 본교 재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서울중심주의의 실태를 들어본다.

편집자

지방중심주의시대를 열어라

서울 편중 여전 … 정부부처 과감한 이전 노력 필요

한국에는 세 가지 지역 등급이 있다. 1등급은 수도(서울), 2등급은 수도권(경기도), 그리고 3등급은 지방이다. 이런 지역 등급은 쇠고기 부위별 등급과 별로 다르지 않다. 지방(地方)은 쇠고기의 지방(脂肪) 취급밖에 못 받는다.

지역 등급제가 가장 잘 나타나는 분야가 대학이다. 한국에서는 대학도 지역 등급에 따라 구분하기 때문이다. 서울대학(서울소재대학), 수도권대학(경기), 지방대학으로 나누는 게 그렇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대학을 분류하고 서열을 매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일본제국이 일본대학, 조선대학, 만주대학으로 분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지역 등급제는 세계체제론자들이 말하는 중심부, 주변부 이론과 맞아떨어진다. 서울은 중심부고 지방은 주변부다. 경기는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중간부다. 이런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권력과 재력을 독점한 서울은 지방의 돈과 인재를 흡입하는 공룡이고, 지방은 공룡의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

흔히 지역 간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영호남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 권력이 모두 중앙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타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지역패권주의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남과 호남이 싸우는 건 정말 바보짓이다. 지방이 힘을 합쳐 돈과 권력을 독점한 서울 특권층에 맞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지방은 황무지, 서울은 생지옥

한국은 인종차별, 성차별, 지역차별, 계급차별이 생동하는 차별왕국이다. 이런 차별왕국에서 사람들은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 목숨까지 건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선진국으로, 이것이 한국인의 '골드로드'(Gold Road)다. 농촌은 촌놈(군민)이 사는 곳이고, 도시는 시민이 사는 곳이고, 서울특별시는 특별시민이 사는 곳이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은 '세계인'이 사는 꿈의 나라다. 중간에 한 두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인의 골드로드 질주는 그칠 줄을 모른다.

서울 중심 등급제에서 서울은 낙원이 되고 지방은 지옥이 될까? 그렇지 않다. 등급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 등급제는 서울사람도 지방사람도 망가뜨린다. 지방사람은 낙후된 지역사정에 고통받고, 서울사람은 무한경쟁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런 과정이 심화되면 지방은 황무지로 변하고 서울은 생지옥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전국의 수도화

이런 사정이다 보니 요즘 한국사람들은 골드로드의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이민과 조기유학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말은 안 하지만 너도나도 기회만 오면 한국을 떠나고 싶어한다. 등급제 나라에서는 아무리 권력을 잡고 돈을 벌어도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 등급은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위 등급은 추락공포와 스트레스 때문에 늘 불안하게 살 수 밖에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등급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깔아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나는 '전국의 수도화'를 제안하고 싶다. 전국의 수도화는 청와대와 꼭 서울에 있어야 할 기관만 남기고 국가기관을 전국 각지로 옮기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모든 국가기관을 좁아터진 서울에 둬야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자면, 국회는 대전으로, 대법원은 부산으로, 한국은행은 광주로, 대검찰청을 대구로 옮기더라도 사이버시대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혁명적 조치가 없이는 지방 황무지화도, 서울 생지옥화도, 늘어나는 이민대열도 막을 수 없다. 낡아빠진 중앙집권체제와 등급제에 얽매이지 말고 지역과 사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발상을 전환해야 할 때다.

최 상 천
전 대구효성가톨릭대학 교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지역인 서울. 서울중심주의는 지방주민들의 소외, 서울의 환경, 교통 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왔다.

또한 지난 98년에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극단적인 서울 편중 현상이 나아졌다는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다. 95년부터 2000년까지 주요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경제집중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95년부터 5년 동안 수도권 지역의 인구와 지역 총생산이 1% 가량 상승하는 등 정부의 정책이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지 않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생색내기식' 정책을 문제삼는다. 여론에 밀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시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역시 모양새만 갖추었을 뿐 지방자치단체들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대 김병준(행정학) 교수는 "주요 사안의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에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이 이양되지 않아 책임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보다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북대 김형기(경제학) 교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방, 외교, 경제정책 등을 제외한 행정의 결정권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현재처럼 열악한 재정상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으므로 세제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전라남도는 소득세의 일부만을 국세로 내게 하고 반대의 경우인 서울 강남지역은 소득세의 많은 부분을 국세로 납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재지역할당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등이 서울중심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인재지역할당제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을 인구비례로 선발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할 경우 인구의 서울 집중을 막고 인재가 지역에 모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역시 인적 자원을 지역으로 결집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본사이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본교 김일중(국제통상학) 교수는 "그동안 정부도 행정기관을 과천, 대전 등 서울 밖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핵심부서는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 부처를 더욱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천상천하 서울독존

학생들이 말하는 '서울공화국'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

서울의 어떤 면이 이러한 속담을 만들어냈을까.

사실 서울에서만 거주한 사람들은 서울이 문화, 교통 등 모든 면에서 타지방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타지역 출신 본교 학생들에게는 서울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일상에서 쉽게 감지된다. 특히 이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문화적 측면이다. 본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목포에서 살던 박민희(경영정보1) 양은 "서울에서 생각만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콘서트도 지방에서는 보기 힘들다"며 "지방에서 열리는 '게릴라 콘서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가수를 보고 싶어서 뿐 아니라 '콘서트'라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만큼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방의 열악한 환경은 편의시설에서도 드러난다. 해남 출신의 이명운(사과대1) 군은 "학생들이 특별한 의미없이 지나치는 장충단공원 같은 시설도 해남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편의시설이나 공원이 없어 등산이 거의 유일한 여가생활"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신으로 본교 경주캠에 진학한 학생들도 서울중심주의를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박주연(한의대 본1) 양은 "서울에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경주는 선택의 폭이 한정돼 있어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구미에서 본교 서울캠으로 진학한 박민정(문창3) 양은 "모든 것의 중심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울을 동경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제는 사람을 낳아서 서울로 보내기보다는 어떤 지방에서든 서울과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때다.

일상 속 '서울 우월주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 서울중심주의가 담겨져 있다면?

△ 나 오늘 지방(시골)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서울 외 다른 지역을 지방이라 일컫는다. 우리나라를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의 결과다. 서울 역시 알고보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하나의 지방일 뿐이다. 지방 또는 여기서 나온 지방대라는 단어에 감춰진 서울중심주의는 서울 외 타지역 학생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시골'이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울 외 타 지역을 무조건 시골이라는 단어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은 다른 지역이 서울 보다 낙후돼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 우월주의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들

사람들은 흔히 서울로 갈 경우 '올라간다'는 표현을, 서울에서 타 지방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서울인 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 지역의 지리상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서울이 가장 상층부에 있다는 서울 중심주의 사고로 해석된다.

△ 전국 생중계되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지난 13일에는 한국방송이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전국에 생중계됐다. 하지만 방송 이후 "서울이 아닌 지역까지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생중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줄을 이었다. 부산시장 후보, 광주시장 후보 토론회가 서울까지 생중계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특별법입법추진위원회 윤덕홍 위원장 인터뷰

"지방대 위기는 국가적 문제"

해마다 대학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출신 학생들은 무려 6만여명. 이처럼 서울소재대학으로의 인재유출은 지방대 위기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다. 고사 위기에 빠진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21개 지방 대학 총장을 중심으로 지방대육성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법입법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지방대 지원 내용을 담은 지방대육성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1천200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에 이 법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특별법입법추진위원회 윤덕홍(대구대 총장) 위원장을 만나 서울중심주의와 지방대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 지방대 위기가 문제되는 까닭은.

= 서울중심주의의 문제 중에서도 교육 분야는 다른 분야의 서울중심주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한다. 지방대학 문제는 단순히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방이 무너지고 나아가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대 문제는 지방대만의 문제로 여겨졌고 지방대의 자구책 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뿌리깊은 서울중심주의로 인한 지방대 위기 문제는 지방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대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 지방대육성특별법은 무엇인가.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이 법의 목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방대에 매년 5조원의 지원금 지급 △대통령 직속 지방대학육성위원회 설치 △각종 시험에 지방대생 할당제 실시 등이 있다. 지방대육성특별법은 지방대학의 위축을 막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앙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

- 일부에서 이 법이 지방대에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 현재 이 법에 대해 지방대에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과 이 법이 계속 유지 될 경우 지방대가 오히려 지나치게 커질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성 할당제의 경우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정한 비율을 정해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뒤틀린 현실을 단기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또한 일정한 기간 동안만 효력이 유지되는 법으로 제정된다면 지방대가 비대해진다는 우려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함민희 기자
lilith@mail.dongguk.ac.kr

동악로 동상이몽

"택시가 또 길을 막고 서있네!"

"저쪽으로 돌아가자"

길마다 택시가 빽빽이 들어선 경주캠의 이곳저곳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을 잇는다. 뿐만 아니라 차량속도를 시속 30km로 규제하고 있는 학교 측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택시들은 고속도로를 달리듯 과속을 일삼으며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듯 본교가 택시의 무법지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자 학내 자치기구들이 택시승강장을 설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 단체마다 의견이 엇갈려 택시승강장 설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학생복지위원회와 총대의원회는 교내 택시승강장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학생복지위원회와 달리 총대의원회는 현재까지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또한 총학생회는 복잡한 주차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학생들은 교육환경이 저해된다는 이유를 들며 택시승강장을 교문 앞에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의 엇갈림과 적극적이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현재 택시승강장 설치는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빠졌다. 학교측도 택시승강장 설치를 재검토한다고 밝히며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간 상태다.

"무엇이 우선인지..."

택시승강장 설치는 교내 구성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생회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내구성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내지 못해 택시승강장설치를 추진하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승강장 설치가 지체될 경우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이곳저곳에 빽빽이 들어선 택시들이 교내가 고속도로인양 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신정환 기자
sjh10th@mail.dongguk.ac.kr

미하일 박 교수 초청 학술강연회

러시아에서 꽃 피운 삼국사기 연구

번역 작업으로 한국학과 동양학 발전에 기여해

1918년 러시아 마리타임주(연해주) 출생
1947년 모스크바국립대 역사학 박사 취득
1963년 모스크바국립대 교수직 임명
1992년 대한민국 동백장 수상
1997년 모스크바국립대학
로모노소프(Lomonosov)상 수상
1999년 KBS 제7회 해외애국자상(과학부문) 수상
현재 모스크바국립대 한국학국제센터장

우리나라 역사연구를 러시아에서 꽃피운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미하일 박(Mikhail N. Pak) 교수가 "러시아에서의 삼국사기 연구" 강연을 위해 지난 16일 본교를 방문했다.

그가 50년대부터 평생을 연구해온 삼국사기는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서 고려 인종 23년(1145년)에 편찬된 삼국시대의 정사이다.

이 책은 삼국의 역사에 대한 최고·최대의 사서이지만 사료로써의 가치는 오랫동안 엇갈리게 평가 돼 왔다.

이러한 삼국사기에 대한 미하일 박 교수의 연구는 러시아어 번역본으로 정리되었다. 그는 지난 1959년 '삼국사기 번역 및 연구' 제1권을 펴냈으며, 1995년에는 2권을 완성했고, 3권은 현재 인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본교에서 진행된 강연은 박 교수가 그동안 연구한 삼국사기 해석과 삼국사기 러시아어 번역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강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부식을 비롯한 사관들에 의해 편찬된 삼국사기는 한국에서 현존하는 역사 기록물 중 가장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상에서도 탁월한 작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삼국사기의 러시아 번역본은 3부로 구상됐으며, 이 구상을 실현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특히 삼국사기 번역은 원본이 지닌 문체상의 특징들을 러시아어로 정확히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번역작업은 거의 한평생이 걸렸다.

삼국사기 러시아어 번역에 따른 오랜 작업은 소련과 러시아의 한국학과 동양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번역본은 한국사학 고전 저작으로서는 서양 세계 최초의 유일한 번역본이 되었으며, 극동 여러 국가들의 유사한 역사서의 출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1972년부터 사마천 사기의 러시아어 번역에 착수했으며, 최근 10년간에는 고대 일본의 역사서인 고지끼와 일본서기의 러시아어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또한 삼국사기 러시아어 번역과 출간 작업은 한국학을 연구하는 젊은 세대에게 초기 한국사 연구에 대한 관심을 북돋아 주었다.

삼국사기 연구와 번역이 가져온 주요 결과는 한국 초기국가들의 봉건주의적 관계 발생과 수립의 주요 특징들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 과정의 본질은 새로 나타난 국가들간의 침략전쟁이 진행되면서 이웃 공동체 주민들을 복속시켰고, 또한 이 공동체 토지를 피지배민으로부터 공물 수납을 보장해 주는 승자의 전체 국가소유로 전환했다는 데 있다.

이후 국가 토지 소유제도의 틀속에서 대토지 소유가 점차 성립되었는데, 이것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기초를 뒤흔들고 통일 신라의 봉건적 분열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었다.

삼국사기의 사실자료에 기초해 내린 이러한 결론의 진실성 여부는 삼국사기가 사료로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때문에 한국사학사의 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삼국사기의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최인숙 교수의 철학이야기 (4)

약자의 논리

어떠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회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사람이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 사회 문제이다.

그렇더라도 우리들은 이상적인 사회를 지향하며 끊임없이 반성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으며, 사람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떤 소수의 의견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 우리들이 지향해야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바람직한 사회형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회구조측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들 측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고방식 중에서 더 큰 정당성은 후자에 놓여있다. 사회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닌 데 비해, 개인들은 그 자체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구조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개인들이지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배 문제이다. 고전적 의미로,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문제에 해당한다.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힘의 분배' 정책을 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부의 분배' 정책을 펴야 한다.

'힘의 분배'와 '부의 분배' 정책은 약자의 논리에서 비롯한다. 왜 약자의 논리가 강자의 논리보다 더 커다란 정당성을 지니는가?

약자가 언제나 옳기 때문이 아니라, 칼자루를 쥐고 있는 강자가 그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자의 그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대다수의 약자이기 때문이다.

이때, 대다수의 약자에 의한 우민정치 및 우민정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기득권자들인 강자의 우려일 뿐이다. 대다수 약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 시간이 좀더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의 과정을 혹 더 오래 겪을 수도 있다는 염려는 가능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약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의 정당성을 무효화하지는 못한다.

흔히 소수인 강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방식을 선호하는 이들은 그 의사결정이 어디에, 누구에게 적용될 것인지를 잊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오늘날 투명성, 공정성을 지향하는 것은 그 정당성은 차치하고라도 시대적 추세이다. 이러한 덕목들은 21세기의 삶의 기본조건이다.

강자는 그 자체적으로는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약자와의 관계에서만 그 덕목들의 실현이 가능하다. 아니, 그러한 덕목들을 실현해야 하는 당위는 강자의 논리로부터가 아니라 약자의 논리로부터 나온다.

21세기 지식인 사전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 (Pierre Bourdieu)

프랑스의 세계적 사회학자이자 참여 지식인인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로 유명한 그는 1930년 프랑스 남부 베아른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명문 파리고등사범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1981년 프랑스 최고의 학술기관인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로 취임했다. 이후 부르디외는 유럽사회학센터를 설립하고 이곳에서 '부르디외 학파'가 형성된다.

부르디외가 일생 동안 몰두한 연구과제는 문화였다. 이 중에서도 개인과 구조의 관계를 아우르는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러한 학문적 관심의 대표적 산물로 '아뷔투스'라는 개념을 창안한다. 어떤 방식으로 인간이 사회적 존재가 되는지를 설명한 '아뷔투스'는 이미 현대 인문사회과학의 기본 용어가 됐다.

그는 연구 틈틈이 현실참여에도 앞장섰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빈민, 노동자, 이민, 실업자를 위한 저항운동에 직접 뛰어들었으며, 2000년 노동절에는 세계적 지식인들의 연대를 이끌어내기도 해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을 벌인 그는 안타깝게도 올해 1월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

본교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보이며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는 부설 연구기관이 많다.

현재 연구기관 현황은 서울캠 불교문화연구원, 사회과학연구원, 정보통신연구소, 전자불전 연구소 등 15개, 경주캠 사찰조사연구소, 한의학연구소, 관광산업연구소 등 11개로 각각의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사 학술부는 연구처 연구지원팀에서 실시한 평가를 바탕으로 3개 연구기관을 선정해 이 기관들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산업기술연구원
2. 교육연구원
3. 한국문학연구소

끊임없이 기술개발하는 '으뜸' 연구원

연구지원팀이 2000년부터 처음 실시한 본교 부설 연구기관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산업기술연구원(원장=백수현·전기공학, Research Institute for Industrial Technology)은 1975년에 산업기술연구소로 설립된 이후 1996년 반도체연구소와 정보통신연구소가 통합돼 발족됐다.

기계연구부, 전기·전자연구부, 화학공학연구부 등 9개의 연구부서로 나뉘어 각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산업기술연구원은 연구·조사활동 뿐 아니라 학술세미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 연구논문집과 소식지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특히 97년부터 시네메카트로닉스(Cine-mechatronics) 센터, 반도체 및 집적회로 연구센터, 컴퓨터 게임 연구센터 등 6개의 특성화 연구센터를 마련해 학과와 프로그램 단위로 운영하던 기존의 방식을 지양하고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연구원은 산학협동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60여 개의 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어 신기술에 관한 정보교류와 연구자원 공동 활용을 통해 기술개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산업기술연구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한 연구과제는 '브로드밴드 디렉토리 엔진 개발' '다이논 게임 개발' 등 모두 39건에 이른다.

또한 올해에는 '교육지원용 홈페이지 자동생성기 개발연구' '서울시 중구지역에 위치한 인쇄업계의 실태조사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연구' 등의 사업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 연구중인 교육지원용 홈페이지 자동생성기 개발연구는 각 교수들의 수업·학생관리를 위해 과제 점검 기능, 성적 산정근거 전시 기능, 공지사항 업로드 기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인쇄업계 조사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연구는 본교가 속해 있는 중구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인쇄업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출판·특수인쇄 제조기술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학연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연구사업이다.

한편, 산업기술연구원은 지난 98년 기자재 첨단화 사업대상 우수 대학 부설 연구소로 선정돼 현재까지 '가상실험용서버' '비접촉 3차원 형사측정장치' 등 고가의 우수 기자재 총 20점을 확보,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2002학년도 2차 전공결정 시행

1. 신청대상
가. 2002학년도 2학년 1학기 재학생 및 2학년 2학기 복학생으로서 전공 미결정자
나. 1차 전공 배정자 중 전공변경 희망자

2. 일정
가. 전공 배정 신청기간
- 2학년 재학생 : 2002. 5. 27(월) ~ 5. 31(금)
- 2학년 2학기 1차 복학생 : 2002. 6. 10(월) ~ 6. 12(수) (1차 복학시기)
- 2학년 2학기 2차 복학생 : 2002. 8. 19(월) ~ 8. 21(수) (2차 복학시기)

나. 전공배정 최종 결정 및 확정공고
- 2학년 재학생 및 2학년 2학기 1차 복학생 : 2002. 8. 9(금)까지
※ 대학별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 2학년 2학기 2차 복학생 : 2002. 8. 30(금)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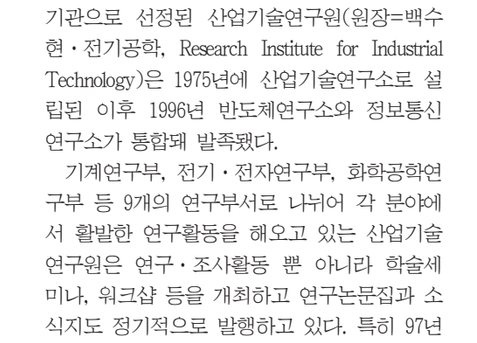
3. 배정기준
가.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성적과 계절학기 성적을 통산한 누계 평점평균을 비교 적용한다.
나. 단, 다음의 경우는 3개학기 이수자와 성적 경재시 3개학기 이수자의 하위에 둔다.
- 2개학기 이수자(조기복학자)
- 3개학기 이수자중 1학년 수료학점에 미달하는 자
※ 1학년 수료학점(2001학번 기준) : 35학점
단, 불교대, 경영대, 사회과학대 경제학전공은 30학점

4. 복학생의 전공결정
가. 기본원칙
복학생은 입학당시 소속된 모집단위내에 개설된 전공(학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단, 모집단위가 세분화되어 소속 변경된 경우 변경한 학부 소속 전공만 지원 가능하다.
나. 배정기준
일반 재학생과 동일한 배정기준을 적용한다.
(3. 배정기준 참조)
단, 2차 복학자의 성적이 2차 전공결정시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재학생+1차 복학자)의 cut-line 보다 높을 경우에는 기준정원(150%)을 초과하더라도 희망 전공에 배정한다.

5. 편입학생의 전공결정
2001년 신입학자의 배정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학기수 부족에 대한 차순위 배정은 하지 않고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을 일반학생과 비교 적용한다.

6. 동점자 처리기준
가. 제1기준 : 개인별 누계 평점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비교한다.
나. 제2기준 : 평점평균이 동일한 자중에서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가 우선한다.
다. 제1, 2기준에도 동점자일 경우 동 순위로 처리한다.

7. 전공결정 신청방법
가. 2학년 재학생 : 인터넷 신청
▶ 학교 홈페이지의《전공결정 인터넷 신청 안내》



나. 2학년 2학기 복학생
(1) 소속 대학 교학과에서 전공 신청원을 교부받아 본인이 소속된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망까지 작성하여 신청한다.(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단, 소속 모집단위내 지원가능한 전공이 4개 미만일 경우에는 4지망 미만이 될 수 있다.
(2) 작성이 완료된 신청원은 학업지도교수의 확인란에 싸인을 받아 소속대학 교학과에 접수한다.
(3) 각대학 교학과에서는 개인별 신청원에 잘못된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란에 날인한다.
(4) 일단 접수된 신청원은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기에 본인이 접수전 최종 확인을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서 울 캠 교 무 처

제1회 전국대학 광고동아리
광고공모전

1. 참가자격
가. 응모시점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전문대 이상 대학(원) 재학생으로 현재 광고 동아리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자. (휴학생도 가능. 단 , 박사 과정에 있는 자는 참가 할 수 없음)
나. 광고동아리의 자격은 학교에 정식으로 등록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됨.
다. 개인별로 참가할 수 없으며 4명 이하의 팀 단위로만 출품이 가능함.
라. 한 팀 당 출품 작품 수는 제한없음.

2. 광고공모전 일정
가. 접수마감 : 2002년 6월 5일 18:00시 까지
나. 심사방법 : 광고학과 교수 및 광고업계 전문가에 의한 개별심사 및 토론심사의 2차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 작품 결정.
다. 수상자 발표 : 2002년 6월 중순경 입상자 개별통지 및 동국대학교 광고학과 홈페이지 공지.
라. 시상일정 및 시상방법은 추 후 공지 예정.

3. 시상내역 :
○대 상 : 1편, 상패와 장학금 200만원 (기획서부문과 제작부문 중 1편)
○최우수상 : 1편, 상패와 장학금 100만원 (대상에서 제외된 부문에서 선정)
○우 수 상 : 2편, 상패와 장학금 50만원 (기획서부문과 제작부문 각 1편)
○장 려 상 : 10편, 상패 (기획서부문과 제작부문 각 5편)
※ 참가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작품소유권은 동국대학교 광고학과에 귀속됨.
표절작품은 수상할 수 없으며 수상하였더라도 사후에 표절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함.

4. 제출처 및 문의처
가. 제 출 처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동국대학교 광고학과 사무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다. 문 의 : Tel. 02-2260-8729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http://home.dongguk.ac.kr/~adpr

5. 응모 주제
가. 바다사랑 캠페인 : 피서철 해변에서 오물투척 행위, 바다환경 훼손 행위 등을 방지하여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하기
나. 자원 재활용 캠페인 : 폐품이나 헌물건, 헌 옷가지 등의 재활용에 동참시킴으로써, 자원의 고갈을 막고 효율적인 소비를 권장하기
다. 디지털 환경 캠페인 : 인터넷상에서 언어폭력을 방지하고 에티켓을 장려함으로써 깨끗한 디지털환경 가꾸기

동국대학교 광고학과

낙산학사 개장

1. 개장기간 : 2002. 7. 1 (월) ~ 8. 18 (일)
2. 접수기간 : 2002. 6. 12 (수) ~ 6. 14 (금)
3. 배정방법 : 실배정은 선착 접수순으로 배정하며 별도의 추첨은 없음.

4. 접수처, 시설사용료 및 캠퍼스별 배정 내역

	학 생 실			
실별 수용인원	20명		7명	
기준(사용일수)	3박 4일		3박 4일	
사용관리비	1인 1박 ₩1,500- (예약금: ₩10,000/1실)			
캠퍼스별 배정	서 울	경 주	서울	경주
	5실	1실	6실	2실
접수처	각 캠퍼스 학생복지실 (☎2260-3047) 학생복지실 (☎770-2049)			

구분	신 청 기 간	구분	신 청 기 간
1회	7월 1일 ~ 7월 4일	9회	7월 25일 ~ 7월 28일
2회	7월 4일 ~ 7월 7일	10회	7월 28일 ~ 7월 31일
3회	7월 7일 ~ 7월 10일	11회	7월 31일 ~ 8월 3일
4회	7월 10일 ~ 7월 13일	12회	8월 3일 ~ 8월 6일
5회	7월 13일 ~ 7월 16일	13회	8월 6일 ~ 8월 9일
6회	7월 16일 ~ 7월 19일	14회	8월 9일 ~ 8월 12일
7회	7월 19일 ~ 7월 22일	15회	8월 12일 ~ 8월 15일
8회	7월 22일 ~ 7월 25일	16회	8월 15일 ~ 8월 18일

5. 유의사항
가. 본교 재학생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 실배정은 선착 접수순으로 하며 별도의 추첨은 없습니다.
다. 시설사용료 및 예약금은 접수시 학생복지실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취사도구는 개인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복지실로 문의 바랍니다.
※ 7월 1일 개장전 이용은 시설관리팀에서 선착 접수순으로 배정합니다.

총 무 처

사회봉사, 그 중심에 대학생이 있다

전문분야 살려 시혜적 봉사에서 함께하는 봉사로 성숙해야

산업화로 인해 생활수준이 향상 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운동'이 확산되었다. 여기에 상아탑으로만 여겨져 왔던 대학도 눈을 돌리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의 주축이 되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값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사 기획부는 대학사회봉사의 필요성과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대학에서의 사회봉사가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 그동안 사회봉사의 학점화, 지역사회봉사, 해외봉사 등을 통해서 대학인들은 사회봉사에 대한 교양을 갖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학봉사는 대학생들의 현실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온 게 사실이다. 90년대 들어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대학생들은 테크노 문화와 함께 이기적이고 소비적인 데에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이때 대학의 사회봉사는 이러한 대학생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함께 하는 사회, 민족 공동체의 지향이라는 푯대를 새롭게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더욱이 2000년대에 이르러 사회봉사는 민족 공동체, 혹은 인류 공동체를 향한 매개로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사회봉사에 대해 이제 업그레이드 된 사회봉사로의 전환이 시급한 때이다. 새로운 단계로의 사회봉사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문제점을 딛고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

첫째로 사회봉사에 대한 교양교육 중심의 이해는 사회복지학과 중심의 사회봉사라는 이미지를 낳게 되었고, 둘째로 사회봉사가 위로부터의 주문에 의한 교양 쌓기여서 때우기식 봉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저학년 학생 중심의 사회봉사의 성격으로 인해 취업반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미 지적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교양교육으로서의 사회봉사에 머무르고 있거나 대학이라는 특수성과는 관련 없는 사회봉사가 자행되어 왔다. 이제 새로운 단계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대학의 사회봉사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단계로의 사회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통한 대학봉사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 교양으로서의 사회봉사에서 전문지식 중심의 사회봉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교수와 전공학생들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참여할 수 사회봉사를 개발해야 한다. 교양 과목 이수를 위한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사회 진출을 위한 가치개념으로서의 사회봉사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동안의 대학 교육처럼 현실과 유리된 사회봉사가 되기 쉽다.

필자가 몇 년 전 미국의 대학 사회봉사를 시찰할 기회가 있어서 다녀온 일이 있다. 그 곳에서 필자는 두 사례의 감명 깊은 경우를 들은 적이 있다. 게티스버그대학 영문학과생 중 알제리 출신의 한 학생이 조국의 민족운동에 참여하여 사망했는데, 영문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이 그 학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 학생을 모델로 하여 연극 공연을 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주민들과 함께 연극 활동을 하여 주민들의 현실의식을 높이고, 주민들과 함께 필요할 경우 정부에 항의데모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식품영양학과에서는 교수와 3, 4학년 학생들이 공동 프로그램으로 필라델피아 시내 임신한 고등학생들의 식생활을 조사하고 처방하여 좋은 성과를 얻은 것을 확인했다. 식품영양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은 공동으로 필라델피아 시내 여고생들의 출산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그들의 식생활이 매우 불규칙하며 이들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자녀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들에게 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정량의 식사를 지도하고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지도를 했다. 그 결과 임신하는 여고생들의 수가 삼분의 일로 줄었다고 한다.

위와 같이 각 학과 단위로 전문지식을 통해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얼마든지 있다. 이제 분명 대학의 사회봉사는 교양교육의 사회봉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회봉사로 전환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는 대학봉사가 노력봉사나 시혜적 봉사에서 함께 하는 봉사로의 영역으로 발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거꾸로 대학에서 습득한 전문지식이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미리 측정해 주고 제시해 주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전 기 철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기획위원 · 숭의여대 교수

사회 돌아보는 '참교육' 현장으로

전담부서 통해 학점제 등 다양한 제도로 참여유도

요즘 대학은 단순한 '지식 양성소'가 아니다.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범생은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까지 눈을 돌리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최근 사회봉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 사회봉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96년 전국 130여 대학 총장들이 모여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이하 대사협)를 구성하면서부터이다. 대사협은 대학 간 교류를 바탕으로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 공모 지원' '한국대학생 해외봉사단' '대학생 자원봉사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 사회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워크숍과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대사협 활동을 시작으로 각 대학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봉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것의 일환으로 현재 많은 대학이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사회봉사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에 대사협이 전국 18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46%인 84개 대학이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17%인 42개 대학이었던 1999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현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숙명여대의 경우, 2시간의 사전교육을 받고 3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 1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양대는 기본교육 2시간과 실습 30시간 그리고 기말평가회 2시간을 마칠 경우 1학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사회봉사 리더십'을 개설,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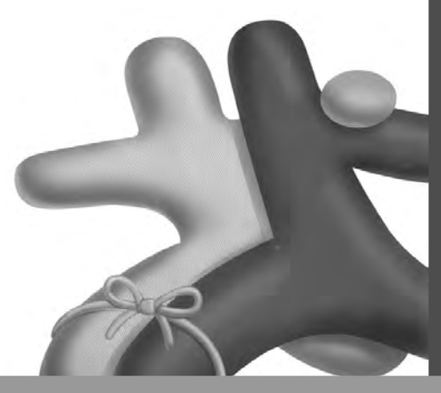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이 졸업 필수요건인 학교도 있다. 성균관대는 공통기초과목인 '유학사상'을 이수하고 30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졸업할 수 있는 '인성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 내 사회봉사 웹사이트를 통해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제공,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회봉사론' 수강 또는 개인적인 봉사활동이나 헌혈을 통해서 인성품을 취득하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성균관대 캠퍼스행정실 한석정 학무팀원은 "인성품 인증제는 학생들에게 도덕적 가치와 봉사의식을 고양시키고 모범적 지도자의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인성품 제도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본교의 참사람봉사단과 같이 정기적으로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 많다. 숙명여대 두레봉사단, 한양대 사회봉사단, 이화여대 이화봉사단 등이 활발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같이 대학 내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대학들이 사회봉사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한양대 사회봉사센터, 이화여대 사회봉사센터, 숙명여대 사회봉사실, 가톨릭대 한걸음봉사실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관련해 한양대 사회봉사센터 김은주 계장은 "봉사대회 개최, 체험수기 공모전 등의 행사 기획 뿐 아니라 봉사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부터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지원해주는 일까지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봉사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러 대학들은 방학기간 동안 의료, 교육 등의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해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봉사기관 박람회를 열기도 한다. 또한 봉사 관련 소식지를 매년 발행하거나 웹진의 형태로 운영해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참사람봉사단 최정숙 사회봉사 담당자를 만나

나보다 '우리'를 배우는 교육

대학 내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되던 초창기, 본교는 1997년 6월 참사람봉사단(단장=김용기 · 수학교육)을 발족해 봉사 프로그램 개발, 봉사단체와 학생 연계 등 전반적인 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했다. 참사람 봉사단 최정숙 사회봉사 담당자를 만나 본교의 봉사활동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현재 참사람봉사단은 어떤 교육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 봉사는 살아가는 지혜를 습득하는 기회다. 참사람봉사단은 불교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봉사를 통한 참사람 육성을 위해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공동체 정신, 창의적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 봉사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배우는 전문분야의 지식이 인간과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경험 속에서 배울 수 있다.

- 참사람봉사단의 구체적 활동은.

= 1년에 4번 봄 · 여름 · 가을 · 겨울학기 사회봉사단원을 모집하며, 봉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직접 선택한 봉사기관에서 33시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봉사활동이 시작되기 전,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하루 동안 현장체험학습을 하고 외부 강사의 특강을 들은 후, 각 기관으로 파견된다.

활동 기관은 학생들의 거주지를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한 공공기관 · 사회단체 · 장애인복지단체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 노인 보호소 보조활동, 상담업무, 해외 봉사 등 다양하다.

-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 한 학기동안 33시간 봉사활동을 마치게 되면 1학점 PASS가 인정되고, 재학기간 중 2학점까지 가능하다. 특히 2000년 1학기부터 장학생 선발 시 사회봉사활동 경력이 있는 학생에게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봉사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해 '사회봉사 적립통장'을 배부하고 있다. 이는 참사람 봉사단원으로 활동한 내용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 봉사내용과 시간을 기록해 활동 내용을 적립하는 것이다. 적립통장은 봉사훈장 수여의 기준이 된다.

-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

= 현재 봉사활동은 기관과 단체에서 의뢰한 활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공관련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 2인 1체가 되어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봉사의 달'인 오는 10월 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해 학생과 교수, 동아리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공모해 표창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앞으로 학내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 오는 6월 참사람봉사단 홈페이지를 개설해 봉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해 봉사활동 신청을 받아 학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한 기관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기관박람회는 안내책자만으로 부족한 내용에 기관관계자를 통해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서울캠 봉사동아리

◈ 길 (학생회관 옥외 지하1층)
매주 목요일 옥수 종합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정신 자폐어린이들의 치료과정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 아저씨가 모인 사랑의 선교수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ELF (학생회관 옥외 지하1층)
교육봉사동아리인 ELF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상암동에 위치한 삼동소년촌에서 '소년학교'를 연다. 부모가 없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1:1 과외지도를 하고 있다.

◈ 젊은새이웃 (학생회관 옥외 지하1층)
매주 월요일 오류동 연세 사회복지관에서 50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1:1 교육봉사를 하고 있다. 성신여대 학생들과 연합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이 끝난 후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관에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다.

◈ 손짓사랑회 (학생회관 2층)
수화동아리로서 매학기 기초반을 개강해 3개월 동안 강의를 받고, 희망자에 한해 중급반 교육을 받는다. 또한 일요일마다 광림사 연화 복지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격주로 세미나를 개최해 봉사활동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 RCY (학생회관 옥외 지하1층)
적십자사에 소속되어 헌혈활동을 주로 하는 동아리이다. 희망하는 회원에 한해 2달에 한번 헌혈을 하며, 모인 헌혈증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PTP (학생회관 옥외 지하1층)
국제적 기구인 PTP에 가입한 국제민간외교봉사동아리이다. 매주 토요일 서울역에 위치한 혜심원이라는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중증장애인시설인 향림원에서 봄 · 가을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푸름누리 (학생회관 3층)
농어촌 연구부로서 봄 · 여름방학 · 가을 3차례 농활을 떠나며, 3~40명의 회원이 참여해 농촌지역으로 봉사활동을 한다. 또한 매주 한차례씩 세미나를 통해 농촌경제와 생활에 대해 토론한다.

교육봉사동아리(ELF) 봉사현장 탐방

사랑을 가르치는 예비선생님들 "정 나누는 일이 더 중요해요"

봉사활동을 기획 주제로 기사를 고민하던 중 주 2회 교육봉사를 나가는 동아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동아리 방으로 전화를 걸었다.

"동대신문사 기자인데요. 봉사활동 동행 취재를 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흔쾌히 '좋다'고 대답하는 목소리에서 일이 쉽게 풀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메라 가방을 들고 기분 좋게 ELF 동아리 방으로 향했다. 교육, 사랑, 우정이라는 뜻의 약자인 ELF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교육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이다. 33년 동안 매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교육을 돕고 있다.

수업이 끝난 오후, 십여 명의 ELF 회원들과 함께 버스를 타기 위해 후문을 나섰다. 충무로를 출발한 버스는 한참을 달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지나서야 멈춰 섰다. "정류장이 없어 꼭 말을 하고 내려야 한다"는 권병달(사범대 체교2) 군의 말과 함께 목적지인 '삼동소년촌'이 눈에 들어온다.

"자, 이제부터 핸드폰은 모두 꺼두시구요. 자신이 맡은 아이들과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라며 주의사항을 일러주는 전영환(사범대 체교2) 군. 소년 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는 전 군은 "소년학교 역시 일반 학교들과 같은 체계로 운영된다"며 "아이들이 우리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잘 따른다"고 말한다. 단지 일반적인 봉사인줄 알고 있었는데 소년학교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소년들과 ELF 선생님들로 이뤄진 작은 학교인 셈이다.

30년 동안 ELF의 활동을 곁에서 지켜본 '삼동소년촌' 김종원(60) 원장은 "매년 사람이 달라져도 학생들이 낯설지가 않다"며 "학생들을 '동대선생님'이라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 아이들의 학습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ELF 회원들, 아니 선생님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아이들과 한 테이블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 수업은 별도의 교재 없이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초등학생부터 고3 학생들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보니 당연히 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게 마련이다.

"솔직히 고등학생 이상 되면 공부보다는 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 권병달 군은 "함께 대화하면서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일도 공부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스코틀랜드의 축구 경기가 있던 이 날은 단연 축구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화제가 됐다. 축구 이야기가 한창인 동안에도 저학년들은 여전히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공부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 셔터를 누르자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카메라에 집중된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하는 생각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이후에도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지만 그 때마다 카메라를 의식하는 아이들을 보며 '더 이상 사진을 찍기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 수 없이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취재할 요량으로 공부하는 아이 옆으로 다가가 한참을 지켜보다가 넌지시 이름을 물었다. 그러자 아무말 없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는 아이의 눈이란 …. 도무지 거기다 대고 이것저것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형들이 와서 같이 공부하니까 어떠냐?"는 질문에 그냥 "좋다"는 말만하고 다른 말이 없는 강정훈(14) 군. 계속되는 질문 공세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쉽게 취재하리라던 생각이 무너지고 막막함이 느껴졌다. 그 때 이곳에 오면서 들었던 회원들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애들하고 친해지는 게 가장 힘들어요. 처음 한 달 동안은 낯선 사람을 피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1시간 동안의 교육이 끝나고 회원들은 저마다 아이들의 학습지도서를 작성하며 활동들을 평가한다. 각자가 공부한 내용들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동대' 선생님들은 사뭇 진지한 모습이었다.

교육을 통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ELF 동행취재를 하며 살펴본 그들의 모습에서 중요한 일은 단지 봉사가 아니라 교육으로 아이들과 정을 나누는 일, 교육을 통해 사랑과 우정을 실천하는 일인 것 같았다.

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월드컵 자원봉사

젊음을 나누는 짝짝짝! 짝짝!

통역·의료 등 전공살려 자기개발에 한 몫

무슨 급한 일인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한밤중에 땀을 뻘뻘 흘리며 어딘가를 향해 뛰어간다. 으슥한 골목길로 접어들자 남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묘한 미소를 나눈다.

얼핏 보면 조만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다. 하지만 모 제약회사의 드링크 광고에서 그들은 귀가시간을 맞춘 '지킬 것은 지키는' 젊은이들이다.

이렇듯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의 모습은 비단 광고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2002 한·일 월드컵 대회'에서 자원봉사로 활약할 대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월드컵축구조직위원회(KOWOC·이하 조직위원회)는 월드컵 자원봉사자로 1만 6천여 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들 중 중·고·대학생을 합쳐 학생이 5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율을 비롯해 경험, 장기·심야 근무여부 등의 종합적인 심사내용을 봤을 때, 대학생의 비율이 실질적으로 압도적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자원봉사의 기본처럼 여겨지는 통·번역의 경우, 조직위원회가 한국외대에 봉사자 추천을 요청했던 것 외에도 월드컵서울시민서포터즈클럽(www.2002supporters.or.kr)이나 월드컵 통역운동본부(www.lapert.co.kr),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www.2002culture.or.kr)와 같은 민간단체가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대학생을 자발적으로 선발했다.

특히 월드컵 통역 운동본부는 봉사자들에게 통역전화 목록을 제공, 길안내 정도의 기본회화가 가능하도록 해 학생들의 부담없는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해 월드컵 통역운동본부 윤창수 소장은 "어학연수를 다녀 온 학생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학 중인 외국 학생들의 참여가 봇물을 이룬다"며 "젊고 활기찬 학생들의 열정이 월드컵의 기본취지와 잘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때보다 다양하고 세분화 되었다. 경기운영, 관중안내, 안전, 통신, 의료부터 FIFA관련 스폰서들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 관리와 각국 기자들의 취재장비를 담당하는 미디어 활동까지 그 영역이 보다 넓어진 것이다.

게다가 온라인에서 월드컵이나 자원봉사의 기본지식에 대해 공부하고, 오프라인 상의 현장학습을 통해 꾸준히 훈련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준비중이다.

이에 미디어 업무분야의 이희승(명지대 정보통신3) 군은 "대부분 전공과 특기를 고려해 자원봉사 분야를 지원한다"이라며 "전공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만나 자기개발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조직위원회 김우중 담당관은 "대학생은 예비사회인인 만큼 월드컵 자원봉사는 사회진출의 또다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3천여년 전 만들어진 한 이집트의 유적에서 '도대체 요즘 젊은이들은…'이란 문구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눈길은 그다지 곱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월드컵과 자원봉사, 재미와 학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대학생들이 3천여년 전 이집트에 있었다면 어떨까. 진정 아름다운 젊은이의 모습으로 후대에 남겨지지 않았을까.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미얀마 의료봉사 수기

"그들의 미소가 우리의 만병통치약!"

요즘 많은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해외로 봉사활동을 다녀오고 있다.

해외봉사는 주로 우리말과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봉사와 동남아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봉사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해외봉사는 해외 문화 체험, 전공과 관련된 자기공부도 가능하게 해 이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본교 의대생들도 역시 미얀마로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이에 봉사에 참여한 장은정 양의 해외봉사 활동 체험담을 들어본다.

작년에 우리가 봉사활동 했던 곳은 미얀마의 수도인 양곤이었다. 옛날 병원이었다는 건물이 우리의 봉사활동 장소였다. 진료가 시작되자 환자들은 줄을 서기 시작했다. 복도며 심지어 건물 밖까지 늘어선 사람들로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상황이었다. '정말 환자들이 올까?'했던 내 생각은 기우였던 것이다.

가벼운 감기환자에서부터 근육통, 피부병, 기생충환자까지 다양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녀갔다. 간단한 시술과 약이면 치료되는 병으로 힘겨워하며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 얼굴에 근심 한 가득 안고 왔다가 약봉지를 소중히 안고 웃으며 돌아갔다. 그러한 그들의 웃음은 밀려드는 일에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만병통치약이었다.

물론 간혹 우리가 가지고 간 약으로는 치료를 해 줄 수 없어 안타까웠던 경우도 있었고, 나중에는 약이 떨어져 진통제와 기생충 약을 주며 미안해해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얘기를 들어준 것에 고마워했다.

가지고 간 약이 떨어져 예정보다 빨리 봉사활동을 끝내야 했던 날. 힘든 일이 끝났다는 안도감보다 진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된 그 곳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먼저 밀려왔다. 그리고 미얀마를 떠나던 날 정든 그 곳 사람들과 헤어짐이 너무 아쉬워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미얀마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은 우리에게 해맑은 미소와 가난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겁게 생활하며, 남을 의심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알고, 항상 서로 도우며 생활하는 모습까지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다.

그곳 생활을 통해 봉사라는 것이 결코 내가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족한 한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한 가지를 주고 내게 부족한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오히려 내가 더 감사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고, 봉사 후 돌아오는 그들의 웃음은 나에게 보람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이다.

봉사는 감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준 곳이 미얀마였고, 그래서 난 그 곳을 사랑하게 되었다.

장은정 (의과대 의3)

봉사는 이제 '남 좋은 일'만이 아니다

참여유도에 앞서 근본의미 일깨우는 교육부터 선행돼야

봉사라고 하면 자신은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일부 '착한 사람'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제 사회봉사가 착한 사람 뿐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되어간다.

특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도 너나 할 것 없이 사회봉사에 뛰어 들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이러한 현상은 사회봉사가 오로지 남을 위한 것이라는 개념조차 바꿔놓는 듯하다.

이러한 봉사의 보편화에 대학들이 앞장서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사회봉사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물론 장학제도에까지 봉사활동을 포함시키면서 학생들의 사회봉사를 유도하고 있다.

본교의 경우 97년부터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면서 현재까지 1천 100여명의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이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봉사활동을 다녀온 한 학생은 "일부 학생들은 마음에서 우러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점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다 보니 봉사활동을 때우기식으로 하고 마는 학생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학점 뿐 아니라 취업에까지 봉사활동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기업체들이 사회봉사 여부에 따라 인성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대학들이 봉사활동 실적을 인증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석대학교의 우석봉사단의 경우 봉사활동 실적을 성적증명서에까지 표기하고 있고, 본교의 참사람인증제 역시 외국어, 컴퓨터와 함께 각종 봉사 실적이 40시간 이상 되어야만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이러한 봉사에 대한 '보상'은 대학 내 보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에게 더욱 크게 작용한다. 2002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가 입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많은 대학들이 학력은 물론 인성, 적성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원봉사 활동 사항까지 대입에 반영해 이 때문에 많은 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자칫 봉사의 본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회봉사가 입시준비용이나 취업준비용으로 전락해 반강제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이현청 사무총장은 "제도적 장치가 사회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은 무시할 수 없지만 봉사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봉사활동을 보편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봉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본래의 의미를 잃은 채 목적달성에만 치중된다면 남을 위한 노동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될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앞서 학생들이 사회봉사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적 장치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 역시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소나기

교수님께 전하는 감사의 메세지

△김호성 교수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백경남 교수님 파이팅임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갑니다.
△양홍석 교수님! 서양사 강의 정말 짱이예요! 서양사에 흥미가 전혀 없던 제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사제간의 正? 情?은 쭈욱~ 계속되어야 한다!!
△강호덕 교수님! 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소식 꼭 알려 드릴께요!
△문자 메시지 도착 - 선생님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김애주 교수님 영어 못하는 저희랑 영어 강의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시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초급 한문 이광우 선생님. 수업 너무 재밌어요. 담에 휴강 한 번 쯤…
△진유정 교수님!! 짱이에요.
△경주에서 서울까지 마음의 카네이션을 보냅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김주필 교수님 화이팅.
△카네이션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조은 교수님, 너무 좋아요.
△신방과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 드릴게요.
△국제통상 김석태 교수님!! 멋쪄요. 수업이 귀에 쏙쏙!! 이론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것들로 수업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쉽맨 옵쓰, 쉽맨 연기쟁이.
△홍광원 교수님 목소리 좀 크게 수업해 주이소.
△교수님, 저를 쳐다봐 주세요. 교수님의 情을 느끼고 싶어요.
△안미진 교수님, 귀여우세요.
△스승의 날만큼은 열심히 강의 들읍시다.
△윤석성 교수님(국문과) 근무 10주년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세상의 고급 유닛이 되겠습니다.
△국사학과 김신재 교수님, 교수님의 미소가 늘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강단을 지켜주세요.
△스승의 날인데 찾아뵙지도 못하는 저를 용서하시와요.
△힘들었다고 기억되는 지난 고3시절, 임영철 선생님 곁에서 힘이 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리포트 쪼끔쪼끔 내 주세요. 그러면 더더욱 감사하지요.
△A+ 주시는 스승님, B~F 주시는 교수님, 모두 감사해요.

동악광장

—— 우리말을 사랑하는 동국인이 됩시다 ——

목멱골

축하합니다

△이번에 성년이 되는 43기들 축하한다. 어른이 된 만큼 더욱 열심히 살아라.
△5월 8일, 늦었지만 조정임 생일 축하해. -사과대 02 어리버리 · 빽태클 일동
△박종식! 생일 추카추카! 너의 팬클럽 조성은 우리에게 맡겨라. -경영대 광년이(02)
△재상옹과 혜경옹의 1주년 추카추카. -닌자아가씨
△야간강좌의 귀여운 꽃(?) 류한성의 생일(5.10)을 진짜 축하해! -용
△경행 박찬석 축 행시(재경 1차) 합격!
△사회학과 금강산 여행 축하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스코틀랜드 4:1 대파!! 한국 축구 파이팅!! 선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해림! 요번 중간고사에 수고 많았다. 계속 열심히 하여라. -M. H.
△ELF 교육 봉사 다녀오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Home Commming Day' 준비하시느라 학생회장 및 과대들 수고하셨습니다.
△북한학과 주점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똥파리 오빠랑 민호 오빠랑 외환관리사 험 잘 봐!
△동국 산악부원들, 춘계 등반 잘한 것 수고했고, 우리의 꿈, 흰 산을 향해 열심히 합시다.
△다음주에 같이 휴가 나오는 현호, 준호. 그 때까지 훈련 열심히 받고 나오면 한 잔하자.
△알바 새로 구한 정빈아, 이번에는 제발 열심히 해라. 중간에 그만 두지 말고.
△친구야, 맑.베.뒤. 수업 좀 열심히 듣자. 과제도 꼭 해서 내구.

그리고…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앞으로 좋은 아들이 될게요.
△이번 축제에서 기억에 남는 건 비 구경한 것 밖에 없다.
△5.18… 뜨거웠던 광주를 잊지 맙시다.
△나의 대학 첫 축제를 돌려줘~
△CJ형, 셀렉션 사줘요.
△01주체들 힘내세요. 민사의 희망 02들을 믿습니다. 17대 민족사연구회 만세! -선배가

온방골

축하합니다

△스무살… 만 20세가 된 걸 축하해!! 함이랑 씬이랑 이지.
△97년 졸업 김인규 씨. 2년 대기 후 드디어 발령 받아 갔군요. 축하해요. -무역학과
△MS와 오빠의 두 번째 만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명주야, 몸은 멀지만 스무번째 생일 축하해~
△정우 오빠, 휴가 나오신 거 축하해요. -ㅎㅇ
△영진이의 컴퓨터자격증 취득을 축하한다.
△미령아, 알바비 받은 거 축하해! 한턱 쏴라!!
△은지야, 100일 축하해. -sj

수고하셨습니다

△한의대 회장님 이번에도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한련출범식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진희언니~ 갑작스런 부탁에 친절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 간호사님, 체육대회 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란아, 수업시간 안 조느라 수고했다.
△미라언니, 매일매일 수고가 많네~ 집안일 하랴, 출근하랴.

열심히 합시다

△혁주야! 이번엔 붙을게다! -오JS
△드디어 다음주 목요일 커밍데이입니다. 연습 가운데 최선으로 일합시다. C-man!!
△성의야~ 공부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잘 보자 -WG
△곧 축제가 시작되네요~ 구성원 모두 하나가 됩시다. -이쁜이
△해병대 이병 장우성, 열심히 훈련받기~ 옆엔 언제나 내가 있을테니깐…
△사 · 복과 여러분, 주막 준비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방훈 오빠! 파이팅~!!
△희진&두연&현주야 이번 학기 끝나기 전에 꼭 남자친구 만들거라. -은순
△광열오빠! 빨리 완쾌해서 컴백해야 해. -왕 sister
△봉학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단다.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여라, 내가 그토록 부탁을 하고 있구만. 사체과 소개팅은 우째 되었는고??
△타입캡술에 꿈 좀 많이 담아주세요.
△친구 미진아. 장기적인 대출 고마워.

오솔길

최 기 신 (사과대 정외4)

한국어학당 자원봉사 도우미

"한국문화 전하는 '학생 외교관' 될래요"

서울캠 혜화관 주위에서는 낯선 모습의 외국인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과의 대화를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들을 피하기 일쑤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 도우미로 선뜻 나선 학생이 있다. 본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에서 도우미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최기신(정외4) 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외국인 학생 파트너가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돕는 봉사활동을 하는 최 군은 일주일에 한번씩 파트너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우리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왔다. "수업과 별개의 활동이므로 외국인 학생들이 즐겁고 쉽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라고 말하는 그는 전통 거리 탐방 등을 통해 자연스레 한국의 정취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한국어 발음을 알아듣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얼마전 만나보니 실력이 몰라보게 향상 됐더라구요"라며 그는 지난 17일 한국어학당 1기 수료를 마친 파트너 자랑도 잊지 않았다.

파트너에게 들었던 낯선 네팔의 문화나 생활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는 최기신 군. 그는 "네팔의 위치를 몰라 히말라야 산 근처냐고 물었더니 자기네 뒷산이라고 하더군요"라고 말하며 파트너 역시 서울의 대표적인 산인 남산이 우리학교 뒷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전했다.

"저도 예전엔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도우미 활동을 하게 된 후부터 외국인을 보면 먼저 다가가지요" 최 군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한다.

2기 한국어학당에서도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울시내 고궁을 방문하는 등 우리문화의 멋과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보고 싶다는 최 군.

앞으로도 그가 활발한 도우미 활동을 통해 '학생 외교관'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길 기대한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농활, 농민과 학생이 하나되는 자리

힘들지만 몸으로 농촌 실정을 느낄 수 있어

사과대는 올해도 제천 봉양읍 명암리로 농활을 떠났다. 우리가 들어가는 명암리는 봉양에서도 그 면적이 가장 크다.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보통 마을보다 두세배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농활의 기본이 되는 호별방문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인원이 많았다면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호별방문을 하루에 마치면 정말 좋겠다는 안타까움. 농활에서 언제나 느꼈던 그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놓고 할머니 혼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골방에서 그 낡은 석유 곤로에 양은냄비 하나 올려놓고 라면을 끓여 드시는 모습을 본다면 어느 누구도 마음이 편치 못할 것이다.

최근 영화 '집으로'가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난 살면서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내 마른 눈물샘을 참 많이도 자극했다.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느낀 그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그런 감정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농활이다. 단순히 모자라는 농촌의 일손을 덜어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농촌의 실정을 몸으로 느끼고 우리 대학생들이 그런 힘든 농촌을 보고 배우는 것이 농활, 농민학생 연대 활동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사실 농활은 육체적으로 힘들다. 그러나 매번 또다시 농활을 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은 이런 농촌의 실정을 직접 느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년 내내 힘들게 일하시는 어른들의 어려움을 농활을 통해 느껴보는 일은 농민학생 연대의 근본이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진정으로 동감한다면 그것은 곧 생활 속에서의 내 행동의 전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일 오전 근로를 마치고 마을을 떠났다. 역시 농활이었다. 몸은 무척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꿀맛 같은 잠을 잤다. 내가 이렇게 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내 몸의 온전함을 고마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농활이라는 지식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활은 농활 그 자체만을 두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 농민과 학생이 연대하는 한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만 생활에서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또한 농촌의 어르신들도 우리 대학생들의 소식을 관심깊게 지켜보시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학교의 축제 기간에 주점에서 농민분들과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을 때 그것을 진정한 농민학생 연대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김홍규 (사과대 정외2)

참된 '나'를 찾아보자

유리잔 하나에 잠시 나의 대학시절 모습을 담아 조심스럽게 뒤돌아본다. 대학교 문턱에 들어선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에 접어들고 있다. 황금 같은 대학 생활을 잘 해 보겠다고 학점관리, 교우관계, 대학의 낭만(?)에 슈퍼우먼처럼 이리저리 최선을 다해 뛰어다녔다. 겉보기에 주어진 결과는 꽤 만족스러웠던 것 같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가슴 속 한편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무엇인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 왔던 것인가?

지난 4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나는 정작 최선을 다해야 할 '나'를 찾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많은 활동을 하며 보냈던 나날들이 위선처럼 느껴졌다. 모양새를 중요시하느라 내 자신이 없었으니깐 말이다.

어쩌면 이곳 온방골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없는 이 순간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4년 전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학점에, 취직에, 교우 관계에 얽매이며 '내'가 없는 구멍난 길을 가고 있다. 모두들 순간의 단물에 푹 빠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며 '내'가 없는 구멍난 길을 가고 싶지 않다. 이젠 진정한 '나'를 찾아 젊은이의 패기와 열정을 쏟으려는 탄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온방골 모든 학생들이 잠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지녀 '나'를 찾는 시간을 지니길 꿈꾸어 본다.

이지은 (자연대 가교4)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원론적 문제 지적 아쉬워

5월은 대학가의 학생들이 분주한 시기이다. 스승의 날과 축제기간들로 인해 이곳저곳에서 갖가지 행사가 마련되곤 한다.

지난호 동대신문은 이러한 학교의 바쁜 상황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목멱 대동제에 관한 기사에서는 다른 해와는 달리 학내상황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축제인 만큼 총학생회에서 부담을 가지는 것들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축제를 학우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총학생회의 의지를 잘 담아낸 것 같다.

한편 사설 '대동제를 통한 단합을 이뤄내야'에서는 이번 총학생회의 일반학생과 함께 '대동제 기획단'을 창설한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매번 학교 축제 때마다 가지는 학생들의 참여 문제와 축제 준비과정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학내 공간 배분문제, 천편일률적인 축제 행사와 주점들…)의 원론적

동대신문
일만이천이 준비한 축제 한마당

〈제1342호 5월 13일자〉

인 문제들을 지적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화칼럼에서는 통문관 · 아티뉴스 · 대훈서적 등의 전문서점들을 접함으로써 기존에 자주 찾던 대형 서점들과의 또 다른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현대시대의 복합, 멀티문화바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기사였던 것 같다.

장지식 (사과대 경제2)

동의대 사건 돌아본 계기

지난호 동대신문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읽었던 내용은 해설면에 실린 민주화운동 인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동의대 사건에 대한 기사였다.

최근 크고 작은 사회적인 사건들이 우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뉴스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전 TV 시사 프로그램과 일반 신문을 통해 이미 13년이나 지나버린 동의대 사건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밝혀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의혹에 관한 내용들을 접하면서, 동의대 사건에 대해 어쩌면 우리 사회가 조금은 무관심(?)한 태도로 넘어갈 수도 있으리란 생각을 했었다. 그러던 중, 동대신문에 실린 기사에 관심을 갖고 읽었던 것 같다.

동의대 사건에 대한 경과내용까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측의 감정적 대응보다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했다는 점과 개인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기사를 읽으면서 논란 문제의 중심을 화재원인에만 두었다는 느낌을 받아 아쉬웠다. 화재원인에 대한 책임 여부에 의해 민주화 운동 인정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단순히 논란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동의대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인 요인들을 함께 언급하였더라면 동의대 사건 민주화운동 인정 논란에 대한 독자들의 폭넓은 이해가 있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권은영 (경주캠 여학생실 상담원)

동대신문사는 여러분의 톡톡 튀는 참신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대신문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학내의 주요 사건에 대한 주장, 시나 수필, 책, 영화를 보고 난 후의 감상문 등을 200자 원고지 4매 분량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서울 ☎ : 2260-3491 · 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 2058 FAX : (054) 770-2057
문의 · 제보 : dgupress@dongguk.edu

금주의 식단

서울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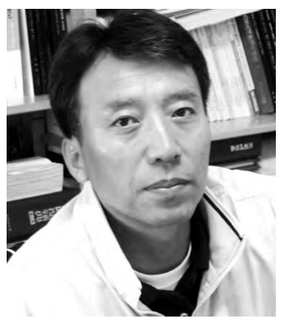
	월(5/20)	화(5/21)	수(5/22)	목(5/23)	금(5/24)
동국관	돈육풋고추찌개 (1300)	설렁탕 (1500)	부대찌개 (1500)	닭개장 (1500)	쇠고기미역국백반 (1500)
	닭갈비볶음 (1500)	김치볶음밥 (1500)	라조육 (1500)	쇠고기카레라이스 (1500)	제육떡볶음 (1500)
	피자돈까스 (1500)	불고기덮밥 (1500)	갈비경단백반 (1500)	오징어비빔밥 (1500)	회덮밥 (1500)
상록원	쇠고기된장찌개 (1500)	육개장 (1500)	떡김치찌개 (1300)	갈비탕 (1500)	비엔나볶음백반 (1500)
	호박찜닭 (1500)	잡채밥 (1500)	간자장 (1500)	모듬볶음밥 (1500)	돈육고추장불고기 (1500)
	감자수제비국 (1300)	오징어까스 (1500)	참치콘볶음밥 (1500)	스파게티 (1500)	열무비빔밥 (1300)
교직원	참치전골 (3000)	우럭매운탕 (3200)	영양솥밥 (3000)	생선까스 (3000)	김치보쌈전골 (3000)
	쇠고기볶음밥 (3000)	더덕구이 (3500)	고등어무조림 (3200)	돈갈비찜백반 (3200)	황태구이 (3200)

경주캠

	월(5/20)	화(5/21)	수(5/22)	목(5/23)	금(5/24)
학생회관	오뎅국 (1300)	대구매운탕 (1300)	얼갈이국 (1300)	시금치된장국 (1300)	따로국 (1300)
	오징어숙회비빔밥 (1600)	닭갈비볶음밥 (1700)	참치야채볶음밥 (1500)	쇠고기국밥 (1700)	오무라이스 (1600)
	함박스테이크 (1800)	잡채밥 (1800)	물냉면 (1800)	낙지볶음밥 (1800)	불고기덮밥 (1700)
	물냉면 (1800)	육개장 (1800)	스패니쉬폭찹 (2000)	육개장 (1800)	물냉면 (1800)

달하나 천강에

월드컵과 시민의식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02 FIFA 월드컵이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20개 도시에서 열린다. 이번 월드컵은 최초로 아시아에서 개최되며, 우리나라 최대의 국제 행사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월드컵대회 기간을 전후하여 외국인들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어 약 17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 제고와 지방의 세계화 등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16강 이상의 승전보보다는 범 국민적 참여와 관심 속에 성숙된 문화시민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기장 관람 실태를 되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월드컵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테러와 안전사고라 할 수 있다. 1902년이래 지금까지 세계 각국 축구경기에서 69건의 큰 사고가 발생하여 1천 6백여명의 사망자와 2만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1980년 이후 대폭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고 중에는 폭력과 난동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중들의 무질서로 인한 압사·시설붕괴·화재·테러 등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줄로 줄서기, 건전한 응원, 경기장 쓰레기 되가져 가기, 경기장 주류반입 금지, 핸드폰 사용예절, 대중교통 이용 등 기초질서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경기관람은 지정된 좌석에서 하고 타인의 좌석이나 통로에서 관람해서는 안 되는 등의 경기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람은 얼굴표정과 외모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큰 인상을 남긴다고 한다. 현대인은 항상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냉철히 관찰하는 습관을 길러 좋은 이미지를 만들도록 해야겠으며, 단정한 복장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태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본적인 매너를 갖추어 '어글리 코리언'이라는 추태를 없애고 우리 모두가 친절과 예의로써 그들을 대할 때, 월드컵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인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각인되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경쟁력과 더불어 힘 있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계기임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새겨 '내가 아니더라도' 하는 소극적 사고에서 벗어나 '나 자신부터'라는 적극적 사고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하 성
인문과학대 사회체육학과 교수

영화평 - '집으로…'를 보고

웃음이 함께 하는 유쾌한 감동

상쾌한 웃음과 따뜻한 감동이 공존했던 영화 '집으로'를 소개할까 한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먼지 풀풀 날리는 시골길을 한참 걸어, 엄마와 7살 상우는 할머니의 집으로 가고 있다.

형편이 어려워진 상우 엄마는 잠시 상우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 외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 시골 외딴집에 오게된 상우, 전자오락기와 롤러브레이드의 세상에서 살아온 아이답게 베터리도 팔지 않는 시골가게와 사방에 돌 투성이인 시골집 마당과 깜깜한 뒷간은 생애 최초의 시련이다.

하지만 영악한 도시 아이답게 상우는 자신의 욕구불만을 외할머니에게 드러내기 시작한다. 같이 보낸 시간이 늘어 갈수록 상우의 할머니 괴롭히기도 늘어만 가고, 베터리를 사기 위해 잠든 외할머니의 머리에서 은비녀를 훔치고, 방안에서 양말을 꿰매는 외할머니 옆에서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내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할머니의 위치 때문이였다. 자신에게 떠 안겨진 외손주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주고 또 퍼주면서 하염없이 '미안하다'라고 계속해서 손짓한다. 말을 할 수도 없고, 글을 읽을 수도 없으며, 또한 노약자이고, 여성이라는 위치. 바로 그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우리 주위엔 우리보다 강한 자들에 가려 보이지 않는 약한 자도 많이 있다. 나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내세워, 그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화 '집으로'의 외할머니는 모든 것을 품어 안는 자연과 같은 존재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상처를 치유하며 위로하는 존재. 그러면서도 자신의 사랑 과 희생을 알아달라고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과 희생으로 성장한 자식들이 떠날 때 붙잡지 않고 떠나보내는, 그런 무한정한 사랑의 존재인 것이다.

비록 들을 수도 쓸 수도 없는 자이지만, 그녀의 가슴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이 있고, 그러기에 그녀의 사랑이 더 빛나는 것이 아닐까?

어지연 (문과대 영문3)

제대로된 분리 수거를 위해

모두가 알다시피 학내 쓰레기통은 허울좋게 하나씩 이름을 달고 있다. 캔, 병, 페트병, 종이, 일반쓰레기 등. 하지만, 이 중 이름값 하는 분리수거통이 얼마나 될까. 번지수 잘못 찾은 쓰레기들과 담배꽁초를 수북히 담은 캔 등의 퓨젼 쓰레기들까지.

분리수거의 문제는 우선 수거함의 수량에서 찾을 수 있다. 캔음료를 마시고 제대로 버리려고 해도 캔을 수거하는 쓰레기통이 없다면 어쩌겠는가. 이리저리 일편단심 캔 수거함을 찾아 헤매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일반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보통 평범한 학생들의 모습이다. 그러하기에 수거함의 종류별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우선적 문제라 할 수 있겠다. 5종류의 쓰레기통이 구분되어 가지런히 나열되어 있다면 이 얼마나 보기 좋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분리수거의 어려움을 주는 두 번째 원인은 다름 아닌 담배꽁초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식후일연은 불로장생이라…' 어느나라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지 이를 받드는 군자들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끽연을 즐기며 그 종이컵을 재떨이로 재활용하는 실정이니 종이컵 수거함은 꽃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쓸쓸히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천덕꾸러기처럼 보인다.

동악내 구성원 모두가 하나되어 깨끗한 동악을 만들면 어떨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쓰레기 분리 수거함들과 흡연자들의 습관만 조금 변한다면 쉽게 깨끗한 학내를 만들고 재활용율을 높여 환경보호에도 앞장서는 학교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한영운 (문과대 독문3)

건물 내 흡연 반드시 금지해야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이것은 요즘 우리학교 학생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는 현안이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 학생들은 개개인이 얼마나 학교 내 교육환경을 위해 배려하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필자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건물 내 흡연에 대한 반대입장을 이야기 하고자 함이다. 건물 내 흡연이 공식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또한, 신고를 당한 사람은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다고 나는 알고 있다. 요즘 들어 교육기관에 관해서 금연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자.

타 학과 건물은 모르겠다. 하지만 동국관 학생들은(물론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듯 그리도 담배를 피워대는가 말이다.

식당 내려가는 계단에서,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안에서…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곳이다. 흡연자들은 말한다. 그것이 그들의 권리라고. 하지만 권리를 말하기 이전에 타인의 권리도 생각을 해 봐야하지 않을까 한다. 비 흡연자들은 흡연한 그 연기를 마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욕스럽다.

절대로 흡연자들이 건물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떳떳할 수 없음이다. 학교에서도 몇 년 전 건물 내 흡연을 금지 시켰으며 그러한 표시를 출입구 곳곳에 설치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건물 내 흡연은 반드시 금지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모든 학우들이 더불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이다.

채희태 (경영대 정보관리4)

2002학년도 하계 해외 자매대학 어학연수 시행

1. 연수개요

구 분	대 학	기 간
영어연수	미국 UCLA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2002. 6. 24(월) ~ 8. 2(금) (6주) 【출국 : 6. 23(일), 귀국 : 8. 3(토)】
중국어연수	중국 북경외국어대학 (Beijing Foreign Studies Univ.)	2002. 7. 1(월) ~ 8. 16(금) (7주) 【출국 : 6. 29(토), 귀국 : 8. 17(토)】

2. 연수내용 : 외국인을 위한 집중 어학실습 및 특별활동

3. 연수인원 : 제한없음 (개인별 수준 평가 후 연수그룹 결정)

4. 연수경비 : 자비부담 (1인당 기준)

구 분	영어연수	중국어연수	비 고
등록비	$150	$50	
수업료	$1,500	$500	
기숙사비	$1,775 (식비포함)	$190 (식비별도)	2인1실
계	$3,425	$740	항공료·개별활동비 별도

※ 상기 경비는 모집인원 등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5. 학점인정
가. 이수구분-교양선택, 과목명-해외 영어/중국어연수, 학점-3, 성적-P/F 로 인정
나. 학부과정 재학생에 한하며, 졸업예정자는 제외함

6. 신청자격 : 학부 및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휴학생

7. 신청서류
가. 해외 자매대학 어학연수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학(휴학)증명서 1부
다. 연수대학 입학신청서류 각 1부
라. 여권사본 1부

8. 원서 교부·접수 : 2002. 5. 13(월) ~ 5. 24(금), 국제교류실
※ 기타 사항은 국제교류실(본관 2층, ☎ 2260-3876)로 문의 바랍니다.

연 구 처

2002학년도 하계 해외봉사 단원 모집

1. 파견목적 : 중국내 한민족을 대상으로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국제적 감각과 봉사 능력을 향상시켜 인류의 평화로운 삶을 사랑하며 세계를 이끌어 갈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함.

2. 신청자격 : 재학생

3. 선발기준
가. 신체 건강하고 성실하며 봉사활동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특기자 우선
나. 각 전문분야별 봉사회 회원
다. 봉사활동 경력자
라.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식이 높은 자
마.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파견 대상자 선발은 봉사단 심의를 거쳐 결정함)

4. 선발인원 : 20명

5. 봉사기간 : 2002. 7. 18(목) ~ 8. 1(목) (14박 15일)

6. 신청기간 : 2002. 5. 22(수) ~ 5. 24(금)

7. 봉사지역 : 중국 요녕성 심양 (만융촌 초등학생, 발해대학생)

8. 활동내용 : 한글교육, 컴퓨터, 한국사, 태권도, 사물놀이, 레크리에이션, 고전무용, 예절교육, 미술, 스포츠댄스

9. 소요경비 : 학생부담 1인당 50만원(기타경비는 학교에서 부담)

10.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진 3cm×4cm 1매) 1부 (봉사단 소정양식)

11. 접 수 처 : 동국참사람봉사단(본관 3층)
(※ 위 일정은 봉사 지역의 사정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될수 있음)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국참사람봉사단 (☎ 2260-3049)에 문의 바랍니다.

서울캠 참사람봉사단

영어 PASS제 시험 시행 안내

1. 대 상 자 : 2001학번 재학생
2. 시험 종류 : 모의토익
3. 일 시 : 2002. 6. 1(토) 10:00 ~ 12:20
4. 시험 시간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입실완료	
10:00~10:20	답안지 작성 및 주의사항 전달/ 휴식 및 시험 준비	
10:20~11:05	Listening 진행	쉬는 시간 없이 진행
11:05~12:20	Reading 진행	

5. 시험 신청 방법 : 홈페이지 - 학사 행정 - 영어 PASS제 - 시험신청(신청결과 출력)
6. 시험 신청 기간 : 2002. 5. 20 ~ 5. 24 (5일간)
7. 준비물 : 컴퓨터용 싸인펜(연필불가), 수험표(출력결과), 신분증
8. 성적 처리 결과 확인 (7월 이후 가능) : 홈페이지 - 학사 행정 - 영어 PASS제 - 결과 확인
9. 문의 : 각 단과대 교학과 및 언어연구교육원 (☎ 2260-3470/1)

서울캠 언어연구교육원

주재현 JFKN 공개 강의

본 언어연구교육원에서는 재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하여,
영어 리스닝을 주로 하는 주재현 JFKN 강의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개설에 앞서서 공개강의를 실시하오니, 재학생 여러분들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02. 5. 20(월) ~ 5. 23(목) (4일간)
▶ 시 간 : 오후 6:10~7:00/ 7:10~8:00
▶ 장 소 : 동국관 L401
▶ 특 징 : 미국현지 당일 방송 영어를 교재화하여 수강생들의 실제적인 영어의 듣기 능력을 증대시키고 속독, 발음 교정을 통해서 Total English Class를 지향함.
듣기 40%, 읽기 30%, 발음교정 30% 외 Vocabulary
▶ 주교재 : ABC, NBC, CNN방송 중에서 최신 News를 주간 교재화 및 최신 영화 (주간지 4~5권, Tape 4~5개, 매월)

서울캠 언어연구교육원

연예프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신변잡기 · 게임 위주 … 방송제작자와 시청자가 함께 바꿔나가야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한 꾸러미의 기계부품이 실려 나온다. 어눌하게 생긴 노동자는 그 앞에 서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기계부품에 나사못을 조이기에 정신이 없다. 결국 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조여버리려는 강박 관념에 시달리게 된다.

1936년 찰리 채플린이 만든 무성영화 '모던 타임즈'. 영화는 대량생산이라는 미명아래 사람이나 기계가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돌아가던 당시 시대상황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또 하나의 모던 타임즈가 탄생한다. 시청률 확보라는 이름 아래 판에 박은 듯 연예인 위주의 똑같은 모양으로 대량생산되는 연예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4일 문화개혁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는 서울일민미술관에서 '공중파방송 연예프로그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연예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포럼은 몇 년 사이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던 스타중심의 방송에 대해 각 시민단체와 방송제작진이 함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먼저 기조발제를 맡은 문화연대 이동연 사무차장은 연예프로그램의 문제를 '말장난의 철학' '신변잡기의 성찰' '게임에서 얻는 생활의 발견'과 같은 비유를 통해 "방송사측이 문화적 콘텐츠의 빈곤과 제작환경의 열악을 단순히 연예인으로만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번째 발제를 준비한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이송지혜 간사는 KBS '서세원쇼' MBC '목표달성 토요일' SBS '쇼! 일요천하' 등을 모니터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예인들의 겹치기 출연과 프로그램의 가학성, 연예인들의 잘못된 언어사용 등을 문제점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 참석한 광운대 김현주 교수는 "TV가 가장 값싼 여가매체가 되면서 연예프로그램의 증가는 당연한 것"이라며 대신 "다분히 유아적이고 무국적·무계획적인 프로그램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토론내용에 SBS 장동욱 예능국장은 현재의 연예프로그램의 실태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기에도 부끄럽다"는 말로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방송제작 현실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연대 이 사무차장은 연예프로그램 파행에 대한 대안으로 "30%가 넘는 현행 연예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빠른 시일 안에 조정되어야 한다"며 "방송위원회의 조정·중재 역할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매체비평우리스스로의 곽윤정 간사는 "방송사 스스로의 반성 없이는 방송개혁이란 뜬구름 잡기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토론회에서 각 시민단체와 TV방송 제작자는 문제점을 공감하고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꾸준히 이야기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연대는 각 방송사간의 조정·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발표해 방송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소위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나 보물상자에 빗대어 설명한다. 하지만 그 둘의 의미는 매우 다르다.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바보상자나 보물상자나 사람의 눈과 마음을 멀게 만들어 사물이나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TV보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보는 이들의 태도일 것이다. 상자에 고물이 들어 있느냐, 보물이 들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물과 보물을 구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들에게는 물론 시청자들에게도 방송의 본 의미와 영향력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클릭! - casa de bastien (members.tripod.lycos.co.kr/bastien)

맘보, 보사노바, 탱고, 파두…지난해 영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아프로 쿠반 재즈와 함께 각광받기 시작한 제3세계 음악, 월드뮤직의 독특한 리듬 속에 흠뻑 빠져들어 보고 싶다면 가 볼 곳이 있다. 월드뮤직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온라인 상의 보물창고 'casa de bastien(members.tripod.lycos.co.kr/bastien)'.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에 귀를 기울이노라면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함께 열대의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이 손짓한다.

사이트 상단의 컨텐츠 중 'radio'를 클릭하면 사이트 운영자인 'bastien'이 진행하며 부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cafe musica'라는 이름의 인터넷 방송이 흘러나온다. 이 방송에서는 각 곡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흥겨운 월드뮤직을 들을 수 있다. 좀더 다양한 곡을 듣고 싶다면 그 옆의 'jukebox'를 클릭하면 된다. 이 주크박스는 방문객이 신청한 곡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magazine'은 월드차트와 이탈리아 산레모 가요제, 유러비젼 송 콘테스트 등 국제 뮤직 페스티발 등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사이트 내 방문객과 운영자간의 의사소통은 게시판에 자유로이 곡에 대한 의견이나 감상, 질문, 음악신청 등의 글을 남겨, 이에 운영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대중가요와 미국의 팝 음악이 판을 치는 가운데 불어온 월드뮤직 바람은 천편일률적인 국내 음악판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비록 아직 방문객들 사이의 정보교환이나 동호회 활동 등 적극적인 모임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casa de bastien'과 같은 사이트가 하나둘 늘어간다면 다양하고 풍부한 대중음악문화가 형성될 날은 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문화단신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홍대 인근의 공연·전시장에서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Seoul Fringe Festival)'이 펼쳐진다. 순수예술의 경직성과 대중예술의 상업성에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998년 창설된 독립예술제가 아시아의 젊은 문화예술가들의 축제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 행사는 음악축제부터 미술전시축제, 무대공연예술제, 거리 예술제까지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세계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축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학술행사와 강연회가 마련될 예정이다.

레디-스탑 영화제

지난해 처음 선보였던 대안영화제 '레디-스탑(Ready Stop)'이 오는 22일 그 두 번째 막을 올린다. 아카데미 시상식 전날 열리는 안티-아카데미의 '골든 레즈베리 영화제'에 착안해 기획된 레디-스탑은 지난해 4월부터 1년동안 개봉한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한다.

이 영화제는 지난 11일부터 온라인상(www.readystop.net)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티즌의 설문조사결과와 전문위원단의 심사로 최악의 영화와 배우를 선정하게 된다.

한국 영화의 흐름을 살피고, 영화보기의 올바른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저자와 독자 사이 시각적 소통을 위하여"

의식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Ⅰ 북 디자이너 최만수

21세기, 각종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모든 소통의 흐름이 빨라지고 사람들은 더욱 감각적인 것을 찾게 됐다.

'디자인'은 이러한 흐름을 읽는 키워드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다른 어떤 매체보다 메세지를 빠르고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자인의 이러한 힘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보다 정신이나 의식을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다. 본사는 3회에 걸쳐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는 이들을 만나본다. 편집자

책 뚜껑. 책 표지의 사전식 설명이다. 즉, 표지를 넘겨 글을 읽는 것은 곧 뚜껑을 열어 미지의 내용물과 만나는 행위인 셈이다.

하지만 독자가 책을 펼치기까지 표지가 하는 일은 단순한 뚜껑보다는 조금 복잡하다. 시각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매력적으로 표현해야만 수많은 책 틈에서 비로소 사람들의 손길이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출판계는 8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의미의 전문적인 표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후 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져 이제는 표지 디자인 작업이 책 출판의 기본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지난 16년간 뿌리깊은 나무시리즈, 순수인문지 디새집 등을 비롯해 대입 문제집 디딤돌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디자인해 온 '끄레 어소시에이츠'의 최만수 씨를 만나보았다. 그가 생각하는 표지디자인의 의미와 작업과정에 대해 들어보자.

- 책에서 표지는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는가.

= 표지는 시각이미지를 통해 독자와 저자를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한다. 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표지디자인은 독자가 책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제에 대한 어떤 '예감'을 줘야 한다. 깔끔하고 정직한 디자인을 통해 책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여운을 주는 것이 '예감'을 주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주제를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표지디자인은 책의 정신이 오히려 오도될 여지가 있어 피하는 편이다.

- 책의 주제를 잘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작업과정을 거치는지.

= 디자인 작업은 보통 2~3명으로 구성된 팀이 진행하고 있는데 저자와 여러 번 만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팀 내에서 토론을 벌인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저자의 전문적인 이야기에 매몰되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책을 처음 맞닥뜨리게 될 독자를 고려해야 표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순한 내용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작업 뿐 아니라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될 독자층에 대한 분석을 거친다. 때로는 계절, 시대상황 등 책 바깥의 부분까지 신경쓰기도 한다.

- 스스로 작업한 책 중 주제를 잘 표현한 것을 예로 든다면.

= '혼자만 살면 무슨 재민겨'라는 수필집이 기억에 남는다. 저자의 흑백사진을 모든 표지 위에 일일이 붙였다. 책을 바라본 사람들이 평생 홀로 농사를 지어온 저자 전우익 씨의 이미지를 조금 더 특별하게 느꼈을 것이다. 몇 만부씩 대량생산되는 책이지만 한 권 한 권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였다.

- 북 디자이너로서 갖는 각오는.

= 책 크기, 모양과 같이 기본적인 것부터 뒤집어 생각해보는 게 디자인이다. 작은 변화를 통해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계속 시도해 보고 싶다. 물론 책을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는 정직한 디자인을 추구하겠다는 원칙 안에서 말이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매체비평

방송 편

디지털미술관

"참신한 형식, 유익한 내용
방송과 미술의 미래를 부탁해"

한국미술을 감각적으로 조명하는 '디지털미술관'.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뜻인즉슨, 세속적인 무리들을 멀리 하고 고고한 절개를 지키라는 것이다. 하지만 까마귀만 점점 늘어나 백로가 설 땅이(혹은 날 하늘이) 없어진다면, 그 때도 계속 '우린 고고해' 하며 까치발로 좁은 땅을 디딜까.

박물관, 혹은 전시회장에서만 가끔 만나볼 수 있었던 미술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그것도 젠체하지 않으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도 않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성큼 다가섰다. 2000년 3월부터 KBS 위성 2TV에서 방영을 시작해, 현재는 매주 토요일 밤 1시 30분 지상파 방송 KBS 1TV에서도 방영 중인 '디지털미술관'. 선정성과 상업성으로 점철된 '까마귀' 방송에 반기를 든 '백로' 미술전문 다큐멘터리이다.

입체적인 컴퓨터 그래픽으로 장식된 세련된 오프닝과 감각적인 영상, 그리고 영상 옆으로 깔리는 차분한 목소리. 절묘하게 조화된 내레이션과 음악이 정제된 화면 위를 매끄럽게 흐른다. 중간 중간에 삽입되는 미술가와의 인터뷰 장면은 프로그램에 전문성과 현실감을 더한다. 미술이라는 비일상적 예술장르를 일상과 접목시키면서 형식의 참신함과 내용의 교양적인 측면도 함께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통미술가들과 박수근, 김환기, 이중섭 등 근·현대 거장작가들의 창작세계부터 영화보다 멋진 TV광고, 간결하고 감동적인 잡지, 외국의 유명예술가가 디자인한 일상용품, 난해한 현대미술작품과 현대예술의 새로운 조류, 우리 미술 속 다양한 한국적 이미지와 문화코드, 복잡한 현대인의 삶을 정화하는 미술, 여가로 즐길 수 있는 창조적 시각활동까지 디지털미술관은 '미술'이라는 이름 아래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어느 하나 놓치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사실 미술작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시도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미술 전문 프로그램은 해설 위주의 정보전달에 그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에 비해 이 도심 속의 오아시스는 시청자로 하여금 함께 미술작품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도록 만들며 현대인의 삭막한 정서를 섬세하게 어루만진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마술지팡이인 영상과 시각이미지로 말이다.

이는 미술에 대한 대중의 희박해져 가는 관심을 끌어내는 한국 미술의 활로일 뿐만 아니라, 흥미 위주로 흐르는 방송가에는 귀감이 될 만한 신선한 충격이다.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져 까마귀 마을에 간 첫 번째 백로는 구식이라는 놀림 하에 무시당한 채 쓸쓸히 돌아왔다. 하지만 두 번째 간 백로는 재치 있는 말솜씨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까마귀들 속으로 들어가 살 길을 찾았다. 이제 그 백로는 어떻게 될까? 까마귀들에게 물들어 본연의 모습을 잊고 까마귀가 되기보다는 까마귀들을 백로로 만들기를 바랄 뿐이다. 디지털미술관, 우리 미술과 방송의 미래를 부탁해요.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이분은 여직 캠퍼스 감상법을 모릅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은 구상에서부터 실제 현장작업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과 실행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건축의 미학이다. 건축은 예술로서 문화의 한 축을 이루는 창작활동인 것이다.

이에 본교 캠퍼스를 건축미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고찰해본다.

편집자

목멱골

이탈리아 산 정상의 옛도시 보는 듯

공학 기술의 집약으로 만들어진 건축은 그 시대 그 장소의 문화적 상징성을 갖는다. 즉 건축 속에는 그 시대의 모습과 장소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학교의 건축을 읽으면 동국의 역사 속에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학교 백년의 역사에서 필동 캠퍼스는 약 50여년을 차지하고 있고, 캠퍼스의 건축은 계속되어 지금도 진행중이다. 캠퍼스의 설계는 전체 마스터플랜에 의하여 건축이 만들어지나 50년의 계획을 처음부터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측 가능한 최초의 마스터 플랜 위에 시대에 따른 첨삭이 필연적이다. 때문에 건축의 형태나 배치도 당시의 환경과 상황에 따른 결과로서 기존의 배치와 형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우선 전체배치를 보면 우리학교는 남산의 한 자락을 차지하고 있어 남산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남산의 산세가 상록원, 과학관, 명진관을 타고 평지로 넘어가는 마지막 구릉의 정상에 광장이 위치하고, 광장의 남쪽과 북쪽에는 청동불상과 코끼리상이 그리고 서쪽과 동쪽에 각각 대학의 상징인 본관과 도서관이 위치한다. 동쪽을 향한 본관 뒤 서쪽으로 원흥관, 정보문화관, 학생회관 등이 위치하여 후문에 이르고, 구릉의 동쪽 사면에는 도서관을 뒤로 하여 정각원, 혜화관, 90주년 기념관 등이 자리잡고 있다.

동쪽 사면의 중간 혜화문을 통하여 들어오면 혜화관과 동국관 사이에 광장이 있고, 구릉의 서쪽 사면에는 만해광장이 있어 본관 앞 중앙광장과 함께 구릉의 다른 높이에 3개의 광장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광장과 건축이 적절히 조화롭게 배치되어 캠퍼스의 특징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다.

캠퍼스의 배치는 구릉의 특성을 살릴 수밖에 없어 자연히 계단식 배치를 하였고 이러한 계단식 배치는 캠퍼스가 한눈에 보이기보다 길을 따라 가며 새로운 광경이 펼쳐지는 아기자기한 맛을 주고 있어, 마치 이탈리아의 산 정상에 발달된 옛 도시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건축도 서로 다른 높이에서 입구를 갖게 되어 공간적 재미를 더해주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본관이다. 본관은 중앙광장에서는 2층이지만 원흥관 쪽에서는 4층으로 서로 다른 입면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고저 차를 극복하기 위한 입구의 생성은 우리학교 건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캠퍼스 내 각각의 건축에서는 시대별로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1950, 60년대 세워진 본관, 과학관의 건축양식은 당시의 진보적 경향의 디자인으로 현대에도 어색하지 않은 우수한 건축이다.

입면의 구성은 햇빛 가리개 양식을 도입하여 단순한 박스형태를 벗어난 입체적인 구성을 하여 당시 유럽에서 성행하던 디자인의 흐름을 타고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입면구성 방식은 90년대에 지어진 문화관, 학술관의 모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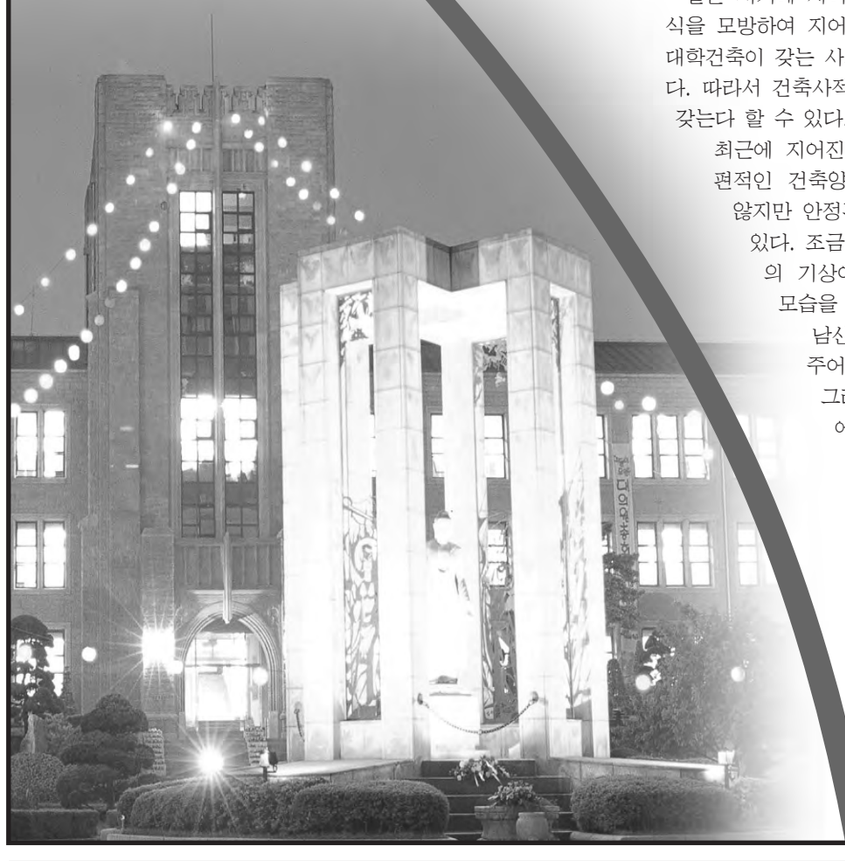
같은 시기에 지어진 명진관은 이와는 반대로 석조건축양식을 모방하여 지어진 건축으로 그 시대의 건축양식보다는 대학건축이 갖는 사회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사적인 의미보다는 당시 사회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최근에 지어진 정보문화관과 상록원은 우리시대의 보편적인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건축으로 진취적이지는 않지만 안정된 모습으로 동국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첨단학문을 연마하는 대학의 기상이 진취적이어야 한다면 건축도 이러한 모습을 표현해야 그 의미가 맞지 않을까 한다.

남산은 우리에게 도심에서 흔치않은 자연을 주어 학교생활에 활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연을 즐기는 대가로 우리는 건축에 제약을 받아 시설 면적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서울캠퍼스는 더 이상 새로운 건축을 만들 수 없다. 기존의 건물에 대한 리노베이션이 가능할 뿐이다.

그래도 미래에 2000년대의 전통으로 동국대를 상징하는 건축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동국의 미래를 보여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의 건축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 홍 일
공과대 건축공학과 교수



온방골

자연 속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

'미학'이란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뜻할 뿐만 아니라 인간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긍정적인 경험-마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와 같은'을 포함한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미학적 경험은 진화, 정보처리, 문화 등 세가지 관점에서 해석된다. 진화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유전자에는 성공적인 진화를 가능케 했던 환경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으며, 그 기록 때문에 그런 환경을 보면 '저절로' 좋아한다는 것이다. 지하고가 낮고 수관폭이 매우 넓은 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는 달리기에 아주 좋은 초원이 진화론적 선호도가 가장 높다.

정보처리이론은 진화의 결과물인 신체의 한계성에 주목한다. 인간의 진화가 자연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든 신체기관은 자연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자연환경에 비하여 정보가 훨씬 많은 인공환경은 그 자체로 정보처리를 하는데 부담이고 스트레스이며 그래서 우리의 신체가 '자동적'으로 자연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문화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족과 사회를 통하여 좋아해야 할 것을 배우기 때문에 한국인은 한국적인 것을 영국인은 영국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세가지 이론을 살펴보면 환경오염과 훼손이 심각한 오늘날, '자연을 좋아함'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본능이자 문화적 요구이다. 특히, 대학과 같이 연구와 학습이 가장 중요한 공간에서는 자연적이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대학은 아직은 자연적이고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만 몇가지 경관적 문제가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학교를 분석하면 두가지가 지적된다. 첫째, 대학의 실질적 입구 역할을 하는 동국대병원과 의과대학이 본 캠퍼스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경관이 혼란스럽고 앞으로 난개발이 진행될 경우 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학전체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대학의 경관적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산강과 의과대학 그리고 본 캠퍼스 사이에 있는 공간을 대학공간으로 확보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캠퍼스 내 건물들의 색채와 모양이 통일되지 않아 조화성이 낮다. 가장 큰 문제는 자연과학대학이다. 모든 건물이 같은 문양과 자재로 이루어지지는 못하더라도 경주의 상징인 지붕이라도 갖고 있다면 경주캠퍼스로서의 경관적 정체성과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미시적 관점에서 학교를 분석하면 두가지가 지적된다. 첫째, 정문을 지나면 고속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교통표지판이 학교 내 표지판으로 이용되고 있어 학교라는 장소에 어울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세련되면서도 적정한 크기의 표지판이 친절하게 서 있다면 학교가 훨씬 아름다우리라 생각된다. 둘째, 도서관과 자연과학관, 그리고 정각원 사이에 위치한 주차장과 운동장이 혼란스러움과 답답함을 자아낸다. 이 공간을 대형 잔디밭으로 만들어 지하고가 낮고 수관폭이 넓은 나무와 예쁜 꽃을 심고 정각원으로 이르는 길을 진짜 '절가는 길'로 만들고, 이길을 호수와 연결한 후 산속의 오솔길로 연결시켜 기숙사에 이르게 하자. 이 공간은 우리에게 진짜 자연과 우리의 문화(절)를 공급하고 학생들의 토론과 사색, 그리고 모임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경관적 구심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캠퍼스는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소프트웨어의 향상이 없다면 에너지소비일 뿐이다. 강의가 진행되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학생들의 노래와 음악소리를 듣노라면 시장에 있는 것은 혹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도 그런 학교를 만들자.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아, 여기가 대학이로구나! 여기에서 공부하고 싶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뛰는 그런 학교말이다.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대학이다.

이 영 경
자연과학대 조경학과 교수

메아리

어리광

▲5월 세 번째 월요일. 대학가가 한창 들떠 있다.

품안에 빨간 장미 스무 송이와 함께 이제 어른이라는 설렘을 안은 스무 살 청춘들이 거리를 누빈다. '성년의 날'은 만 20세가 된 청년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인정받게 되며,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부여받게 되는 날이다. 막 성년식을 치르고 어른이라는 자유의 명찰을 달게 된 청춘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도 함께 지게 됐다.

▲2002년 5월 세 번째 주.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지난 16일 39살의 김홍걸 씨가 드디어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부모님께 면목없다'며 착잡한 표정으로 검찰청 엘리베이터에 오른 대통령의 막내아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홍걸씨는 최규선 씨와 함께 체육복표사업자 선정 등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 약 15억 원의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가성 있는 돈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대통령 막내아들은 자신뿐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고개 숙인 남자로 만들어 버렸다.

▲1997년 5월 세 번째 주. 또 다른 한 남자가 번쩍이는 불빛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는 다름 아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막내아들 김현철 씨다. 당시 현철씨는 홍걸씨와 비슷한 혐의로 쇠고랑을 차게 됐고 대통령 임기 말 아버지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아버지 덕'좀 보려다 똑같은 시나리오로 망신살 뻗친 현철씨와 홍걸씨. 국민들의 눈에는 이 두 사람이 아버지 품에 안긴 어린아이로 보일 뿐이다.

▲5월 세 번째 월요일 수많은 청춘들이 성년의 날을 맞아 '어른신고'를 하는 동안 나라어르신들의 막내아들들은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 품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권력의 포근함에서 아직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들들의 어리광. 국민들은 꼭 5년 만에 이 불쾌한 재방송을 지켜봐야 했다. 권력이라는 온상에서 자란 대통령 막내아들에게 성년의 날은 도대체 언제란 말인가.

김혜진 기획부장
atom@dongguk.edu

동아리 탐방 - 경주캠 요트부

푸른 젊음 위로 열정을 띄운다

'폼 나는' 윈드서핑 위해 주말마다 연습 … 전국대회 우승

'물과 바람만 있으면 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만사 제쳐두고 물과 바람 속으로 뛰어드는 요트부원들. 이들은 출렁이는 젊음 위로 열정을 띄우기 위해 결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80년에 창립된 요트부는 요트를 타지 않은지 오래다. 무늬만 요트부가 된 것은 15년 전부터로 경북요트협회와 학교 측의 지원이 없어지면서이다. 그래서 요트보다 금전적 부담이 적은 윈드서핑으로 종목을 바꾸게 되었다. 하지만 윈드서핑도 장비가 비싸기는 마찬가지이며, 이를 취급하는 가게도 드물다. 그렇지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선배들이 있기에 요트부는 오늘도 순항할 수 있다.

매 주말마다 가장 바람이 좋고 서핑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울산 진하 해수욕장을 찾아 윈드서핑을 즐기며, 젊음을 발산하는 이들의 모습은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단순히 폼 나는 동아리로만 그들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우아한 자태를 만들기 위한 백조의 부지런한 발길질처럼 그들은 '폼 나는' 윈드서핑을 위해 3월부터 11월말까지의 모든 주말을 연습에 투자해야 한다. 이들은 주말 내내 연습하느라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태양 빛에 얼굴은 허물이 벗겨지기도 한다.

본사 사진자료

요트부 회원이 울산 진하 해수욕장에서 윈드서핑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요트부 회원들은 오히려 태양과 바람, 물결에 도취되어 모진 풍파의 그것은 뒷전이다. 김명진(법3) 회장은 "시원한 바람을 돛에 받아 물살을 가르는 질주감 때문에 윈드서핑을 한다"며 "그 맛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전한다.

또 세상에 둘도 없는 그 맛을 기술로 축적 해 지난해 '거제 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에서 대학생 부문 1등이라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한편, 스포츠 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부원보다 여자부원이 더 많다는 것은 또한 요트부만의 특징이다. 윈드서핑은 체력보다는 기술이 중요해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바다에 대한 믿음과 사람들에 대한 신뢰, 자기 의지의 삼박자 속에 이어져 왔다는 요트부. 바다 위에 물든 푸른 젊음의 항해가 앞으로도 순항하길 바란다.

함민희 기자
lilith@mail.dongguk.ac.kr

취업 · 자격증 정보

자격증 선택 포인트 4가지

자격증은 기업에게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그들의 능력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기업에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격증은 노동능력에 관한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기능이므로 자격을 취득했다고 보다 나은 취업이 가능함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며,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다음은 자격증 선택 요령이다.

선발 예정인원

국가 공인 자격 중 시행 부서에서 인력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미리 인력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인원을 산정·공고하는 자격증이 있다. 이 자격증의 경우 공급은 일정인원으로 제한되고 수요는 증가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고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개업 가능 여부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반면, 정년이 단축되고,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이직·전직이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연령에 제한 없이 정년 후 또는 퇴직 후 계속적인 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개업가능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법적 의무고용조항

국가자격 중 많은 자격증이 관련법에 의해 자격취득자를 일정 수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취업 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체 현황과 자격 취득 수를 고려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신설 자격증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자격증이 신설되거나 폐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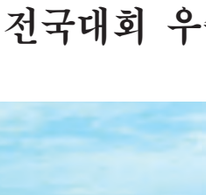
신설자격증은 자격취득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된 것이다. 그러므로 활용 가능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자격취득에 따른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적으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발전가능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우선 어떤 분야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응시 자격이나 시험과목 및 출제경향 등 그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료제공=취업지원팀

35mm 세상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서
살아 생전
저 풀꽃들을 위로하며
꽃옆에 다정히 앉아볼까
이 강토 어디를 쓰다듬은들
-김용택. '오월' 중

지난 19일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행사에서
엄태규 사진부장 snail11@dongguk.edu

이번주 책소식

이창배 전집 10,11,12권

본교 이창배 명예교수가 번역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 주석까지 담은 현대영미시감상Ⅰ·Ⅱ. 21세기 직전까지의 현대영미권 대표시인 총 41명의 불후의 명작 225편의 대표시가 망라되어 있다.

또한 이 교수의 전집 마지막인 W.B. 예이츠 시연구는 예이츠의 초기시로부터 말년의 시까지 고루 섞여 있어 여러 측면에서 이 시인을 읽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창배 지음/ 본교 출판부/ 정가 10권 1만9천원, 11·12권 1만8천원.

가보고 싶은곳 머물고 싶은 곳

한국의 크고 작은 사찰에 숨겨진 건축적 아름다움과 비밀을 발견하게 해 주는 책.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교수가 전국의 사찰을 기행하며 글을 썼고, 범어사에서 수행중인 사진가 관조 스님이 인상깊은 모습들을 사진에 담았다.

저자는 애정을 가지고 우리 사찰 건축을 보되 또한 건축학자로서의 엄밀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김봉렬 글, 관조 스님 사진/ 안그라픽스/ 정가 1만5천원.

전통한의학의 뿌리를 찾아서

본교 한의과대 강병수 교수가 임상과 교육 40년을 기념하여 한국전통한의학의 정신과 역사를 담아낸 책.

이 책은 전통약재를 찾아서, 한의학의 길, 한의사와 마음수련방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한의학 속에서 저자가 느꼈던 재미있었던 일과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속에 전통한의학의 사연들이 곳곳에 쓰여져 있다.

강병수 지음/ 본교 출판부/ 정가 2만2천원.

늦깎이 노총각의 좌충우돌 싱글유학기

영어공부와 미국에 관한 속시원한 해답이 들어있는 책. 이 책은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칼럼난에 칼럼지기 최진오가 연재하던 글로 출국하던 날의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미국의 겉모습과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하며 바라본 미국사회의 이면까지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들여다본 우리들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다.

최진오 지음/ 문학과 의식/ 정가 8천500원.

Q & A

계절학기 (서울캠)

- 개인 사정 때문에 계절학기 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못했거든요. 혹시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

= 계절학기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정정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5월 21일, 22일 이틀간이며, 이때는 개설이 확정된 과목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특강 (경주캠)

- 기존 학기 중 학교에서 외국어특강을 하는 경주캠퍼스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특강을 서울캠퍼스에서 들으려고 하는데요. 서울캠퍼스에서 들을 수 있어요?

= 서울캠의 외국어특강 대상은 학생 및 일반인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과 경주의 특강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경주에서 접수는 안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Q&A방에서)